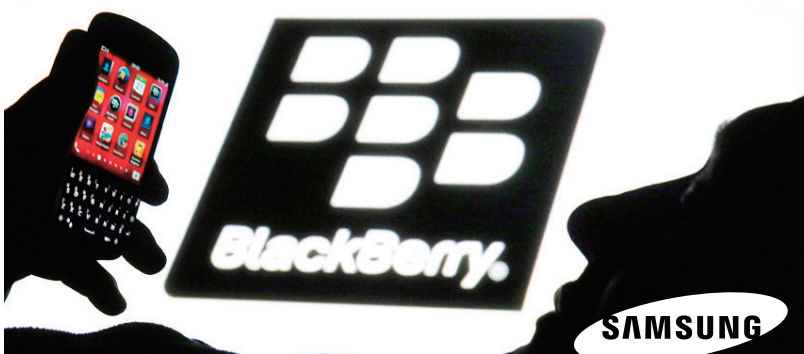




3년 만에 다시 나온
‘삼성, 블랙베리 인수’
양측 모두 “NO”

삼성전자, 블랙베리 양측이 일부 외신을 통해 제기된 인수합병설을 공식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15일 캐나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랙베리 인수 추진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블랙베리도 인수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어떤 접촉도 가진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은 삼성전자가 특허권 확보 차원에서 최대 75억 달러(약 8조 1100억원)에 블랙베리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B2B(기업 간 거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보안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블랙베리 인수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블랙베리 인수 추진 외신 보도는 지난 2012년 초에 이어 또다시 나온 것이다. 삼성전자는 당시에도 “인수할 계획이 없다”며 강력 부인한 바 있다.

‘오바마 폰’으로 불리며 한때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던 블랙베리는 삼성전자, 애플에 밀려 점유율이 1% 아래로 추락하는 등 위기를 겪었다. 2013년 매각을 추진하다 돌연 독자생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후 모바일 보안 솔루션 분야의 강점을 기반으로 기업용 시장에 집중했다. 더불어 미국 군납, 정부 조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았다.

블랙베리는 최근 기업용 시장에 더욱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

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업무용 활용도를 높인 대화면과 키보드 자판, 높은 보안 수준을 탑재한 ‘패스포드’를 글로벌 출시했다.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폐막한 ‘CES 2015’에는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발표했다. 이 플랫폼은 블랙베리가 독자 개발한 QNX 운영체제(OS)가 기반이다.

삼성전자는 포화 상태인 스마트폰 시장의 돌파구로 B2B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무선사업부의 체질을 B2B 사업 중심으로 싹 바꿨다. B2B사업을 총괄했던 글로벌B2B센터의 마케팅·솔루션·영업 등 실행 기능을 무선사업부로 배치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보안 분야에서 블랙베리와 계속 협력해 왔다. 지난해 11월 양사는 ‘블랙베리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12(BES12)’를 삼성전자의 기업 솔루션 ‘녹스’와 함께 기업용 스마트폰·태블릿 PC에 탑재하는 내용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블랙베리 주가 폭등했다
“부인”에 시간외거래 폭락

한편 삼성전자의 인수 추진 보도에 나스닥에서 블랙베리 주가는 29.71% 폭등한 12.60달러에 마감했다. 그러나 블랙베리가 삼성전자와 인수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6% 이상 폭락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min@
정호진 기자 js62@

기준금리 年2.0% 동결

한국은행은 1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올미년 첫 달 기준금리를 현행 연 2.0%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사상 최저 수준을 석달째 유지했다.

저성장 저물가 기조속에 추가 인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현금 수준이 경기를 부양하는 데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작년 8, 10월 두차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

이진영 기자 mint@

코스닥 상장하려면 상반기를 노려라

지난해 기준 일반공모 청약률 ‘869대 1’… 하반기의 2배
신규 상장법인 주가도 3배↑… 1분기에 효과 가장 높아

코스닥 신규 상장 효과가 하반기에 비해 상반기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신규 상장은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지만 제대로 된 기업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반기가 더 유리한 셈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신규 상장법인 69개 중 기업인수목적(SPAC), 재상장기업 등을 제외한 40개사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상장사(4개사)의 평균 일반공모 청약률이 869대 1로 하반기(36개사) 391대 1보다 2.22배 높았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이 상반기 신규 상장사의 공모 참여를 하반기보다 활발히 했다는 뜻이다.

상반기 신규 상장법인은 주가에서도 전반적으로 하반기보다 상승률이 약 3배 높은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 상장사의 공모가 대비 상장일 시가 증감률 평균은 85%로 하반기 36%를 앞섰다. 상장일 증가 증감률 평균 역시 상반기 99%, 하반기가

33%를 기록했다.

상장일 이후 1주일 동안의 주가 증감을 보면 상반기가 108%인 데 반해 하반기는 35%에 그쳤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가 신규 상장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반기 가장 많이 몰린 4분기에는 오히려 상장 효과가 미미했다.

1분기의 청약률 평균은 889대 1로 2분기(807대 1), 3분기(715대 1), 4분기(299대 1)를 크게 앞섰다.

상반기 상장사는 하반기의 9분의 1 수준이지만 시장의 관심도와 주가 측면에서는 하반기를 압도했다. 이는 상장사가 몰

리는 하반기보다 회사에 대한 호보가 용이하고 투자자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실적 등의 이유로 하반기 신규 상장이 몰리지만 이는 오히려 홍보 효과나 투자자 노출 빈도가 떨어져 실적이 좋아도 불리한 면이 있는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반기 신규 상장하는 경우 시장의 관심이 높아져 오히려 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홍보, 투자자 노출 등의 효과가 상반기가 훨씬 높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쌍용차 해고 노동자 만난 마힌드라 회장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왼쪽)이 14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쌍용차 공장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오른쪽)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유일 사장(가운데)과 김규한 쌍용차 노조위원장도 함께 자리했다. 마힌드라 회장은 실제 노동자와의 만남에서 “회사 재정상황이 정상화되면 2009년 회사를 나간 생산직 직원부터 단계적으로 복직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제공

엮친데 덮친 권오감포 개혁

현대중 1500명 희망퇴직 나서자
사무직, 노조 설립 추진 ‘맞불’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사진)이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노조와 직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15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 회사의 사무기술직 직원들은 별도의 사무직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노조 설립 배경은 현대중공업이 과장급 이상 15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에도 사무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더 이상 희망퇴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왔다. 그러나 권 사장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인력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을 통해 최소 500여명의 인력을 줄이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이 14일 플랜트사업본부와 해양사업본부를 통합하기로 한 것도 인력 구조조정과 연관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막대한 적자를 유발하고 있는 플랜트 사업의 축소와 함께 이 부분의 인력도 대거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저가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사우스 등 현재 진행 중인 플랜트 공사의 적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는 경쟁력이 갖춰질 때까지 플랜트 공사의 수주를 그만두기로 했다. 사실상 플랜트사업을 포기하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3분기까지 3조 2273억원 규모로 적자를 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해 4분기 실적도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정책자금 180조 풀어 경제도약 이끈다

‘역동적 혁신경제’ 업무보고

신성장산업 육성 100조 공급
기술금융, 20조로 대폭 확대
창조경제펀드 조성 창업 지원

박근혜 정부의 정책 아이콘인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 180조원의 정책자금이 공급된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살리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중기 패스트트랙이 연장되고, 중소기업 M&A 펀드가 3년간 1조원 규모로 운영된다. 성장사다리·모데펀드 등을 활성화해 제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금 3조원을 집행하고, 약 6000억원 규모로 창

조경제 혁신센터 펀드를 조성해 창업 투자 기반도 확대한다. ▶관련기사 3·4면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역동적 혁신경제’라는 주제로 올해 주요 업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 63조원, 기업은행 56조원, 신용보증기금 41조원, 기술보증기금 19조원의 자금을 지원해 창조적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약 30조원 규모로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오는 2017년까지 가동한다. 또 창업·벤처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10조

5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아울러 창업·성장·회생·재도전으로 이어지는 벤처·창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축 등을 위해 3조원의 투자자금을 집행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1000억원 규모의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기술금융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대보증면제를 확대하는 한편 실패기업에 대한 재도전 환경 조성 및 판테크산업 육성 등 금융분야 개혁에 도박차를 가한다. 판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자금을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점검으로 전환하는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안철우 기자 acw@

데이터 뉴스 Data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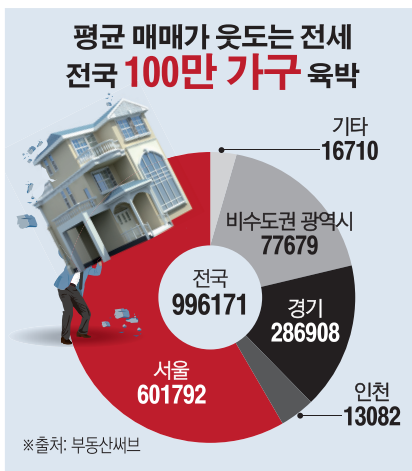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역대 최고치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가구수가 총 100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억8664만원이고 이보다 비싼 전세 아파트 가구수는 전국 648만990가구 중 99만6171가구(15%)로 조사됐다.

이는 2006년 조사 이후 역대 최고치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박태진 기자 tjippo@



작년 은행 가계대출액 최대폭 증가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이 37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14년 12월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560조9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7조3000억원 늘었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8년 27조1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은행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35조5000억원)이 주도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목요일선 17~21면

커버스토리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이덕훈 회장 ▶6 이재용 부회장 ▶8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롯데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의 해임으로 촉발된 그룹 후계구도의 균열 시점이 다시 재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의 해임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결정'이었다는 세간의 관측이 신동빈 회장의 입으로 직접 밝혀진 만큼 해당 시기에 맞물린 형제간 대권 경쟁을 짚어보면 자연스레 향후 경영승계 구도를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13일 밤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형의 임원직 해임은) 아버님이 하시는 일이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신동주-일본, 신동빈-한국'이라는 후계구도 공식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

LOTTE

2013년 신동주-신동빈 후계구도 균열 정황

신동주	신동빈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손해보험 등 계열사 주식 연속 매입	경쟁적 지분매입
태국, 인도네시아 진출 신동주 "제과 브랜드는 일본이 주도"	사업영역 침범
롯데알미늄 9개월간 그룹 회장으로 명시	경영권 장악 및 관련이슈
	롯데제과 1년여 걸쳐 매입, 롯데푸드 1.96% 지분 확보
	2007년 베트남 제과업체 인수 후 동남아 사업 한국 주도로 진행
	"아버님이 한 일이라 모른다"



김기범
전 대우증권 사장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운용 사장



황영기
전 KB지주 회장

금투협회장 선거 '3파전'

김기범 증권업계 대표 국제통

최방길 전략기획 전문가 평가

황영기 우리·KB금융 회장 역임

롯데 대권경쟁, 2~3년 전 이미 시작됐다

◇2년 전부터 한국 계열사 지분 경쟁 =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동주, 동빈 형제는 2013년부터 한국 롯데의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형제는 롯데그룹 순환출자 고리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롯데제과와 지분 매입 경쟁뿐만 아니라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등의 주식도 경쟁적으로 끌어다녔다.

동생인 신 회장은 2013년 5월 롯데케미칼 주식 6만2200주를 매입하며 보유 지분을 0.3% 늘렸다. 이후 6월 롯데제과 6500주, 롯데칠성 7580주를 잇따라 매입했고, 그해 9월 롯데손해보험 주식 100만주(1.49%)를 사들였다.

동생이 지분을 늘리자 신 전 부회장도 뒤질세라 한국 계열사 주식 매입을 멈추지 않았다. 2013년 8월 롯데제과 지분을 취득한 후 작년 9월까지 1년 1개월 동안 거의 매달 주식을 샀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제과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 롯데푸드의 주식 2만6899주(1.96%)도 대거 매입했다.

롯데가(家) 형제가 계열사 지분을 경쟁적으로 사들이자 세간에서는 형제 관계가 한순간에 험악하게 바뀌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당시 시작된 지분 매입 경쟁은 형제가 함께 롯데제과와 롯데칠성 주식을 매입한지 10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2003년 이후 2013년 초까지 단 한 번도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

‘제과’‘케미칼’ 등 韓계열사 지분 경쟁적 매입 “상호출자 해소 차원” 해명 불구 형제 불화설 신동주, 동남아 진출 ‘과자 한일전’ 벌이기도

당시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지분 매입은 주가 하락에 따른 책임경영과 계열사 간 상호 출자 해소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10년 만의 지분 매입 경쟁은 이례적인 것이 사실이다.

◇해의 영역 침범에 불편한 관계 이어져= 2013년 9월 2일, 아우에 대한 형의 감정이 일본 신문 지면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다. 신격호 회장이 정한 후계구도에 대한 형의 ‘대항심’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해석이 나왔던 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롯데가 6억명의 거대 시장인 동남아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롯데가 2013년 7월부터 태국에서 영업을 시작했고, 11월 인도네시아 공장의 가동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이날 신문은 한일 최초로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인터뷰와 해설기사를 게재했다. 신문은 “태국 신공장 준공식에서 신 부회장이 일본에서 태어난 과자를 해외로 넓히는 것은 일본 롯데의 역할이다. 과자 브

랜드 전략은 일본이 주도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신 부회장이 한국 롯데에 대한 대항심을 슬쩍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남아 시장은 원래 한국 롯데가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신 전 부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본업 구도가 해체됐고 지분경쟁 등 롯데그룹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앞서 2007년 신동빈 회장이 베트남 제과업체인 비비카를 인수하며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선 만큼, 신 전 부회장의 ‘일본 롯데 주도설’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본 롯데의 동남아 진출로 형제간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는 게 당시 한·일 재계의 공통된 관측이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장남 해임과 관련해 지난 10일 신 전 부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72) 롯데홀딩스 사장 사이의 경영방침을 둘러싼 대립 때문이며,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국 쓰쿠다의 노선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 계열사 장악 시도 정황= 본지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해임 직후 롯데알미늄이 지난해 분기 및 반기 사업보고서에 신 전 부회장을 그룹 회장으로 표기한 부분을 단독 보도했다. 기사가 나간 직후 롯데알미늄은 정정 공시를 통해 신 전 부회장의 담당 업무를 “자문”으로 정정했고, 그의 주요 경력 역시 “롯데칠성음료 이사에서 ‘호텔롯데 이사 겸직’으로 고쳤다.

롯데그룹 측은 이에 대해 단순 착오 기재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체제 아래의 그룹 계열사에서 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을 단순 착오로 잘못 표기할 수 있냐는 부분은 의혹을 더한다. 신 전 부회장을 그룹 회장으로 표기한 사례가 3분기 보고서뿐 아니라, 지난해 1분기 보고서와 반기 보고서 등 3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난 만큼 일시적 착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신 전 부회장이 ‘일본L제2투자회사’ 등 일본 계열사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알미늄의 경영권 장악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L제2투자회사는 일본 롯데상사로 부터 분리된 투자부문 회사로 신 전 부회장은 해임 전까지 롯데상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20일 전자투표로 최종결정

누가 최후의 1인이 될까? 제3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 최종 후보에 김기범 전 대우증권 사장, 최방길 전 신한BNP파리바운용 사장, 황영기 전 KB지주 회장이 올랐다.

금융투자협회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후보자 5인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후 최종 후보자 3인을 확정해 발표했다. 3인의 후보는 증권사, 운용사, 은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은 전문가들이다.

우선 김기범 후보는 씨티은행에 입사한 뒤 형가리 대우증권 사장, 대우증권 국제영업본부장, 메리츠증권증권 사장, 대우증권 사장을 역임했다. 증권업계 대표적 국제통이자 투자는은행(IB) 전문가로 온화한 성품과 소통을 중시하는 ‘덕장’으로 평가받는다.

최방길 후보는 한국거래소를 시작으로 신한은행 창립 멤버, 신한금융지주 상무, SH자산운용 부사장과 통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사장 등을 역임하며 국내 금융산업의 격변기를 몸소 겪은 ‘전략 기획통’이다.

황영기 후보는 입후보자 가운데 가장 화려한 스펙을 자랑해 ‘거물’로 꼽힌다. 삼성증권, 삼성투신 사장, 4대 금융지주인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회장을 잇달아 거친 ‘금융권 산증인’으로 꼽힌다.

한편 제3대 금투협회장을 뽑는 회원사 총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선거는 164개사(증권 60개, 자산운용사 86개, 신탁사 11개, 선물사 7개)가 참여해 전자비밀 투표로 이뤄진다.

선거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자는 하루 평균 다섯 곳 이상의 회원사를 방문하며 표심을 얻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3년 만에 금융투자업계를 대변할 새 수장 선출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시장 중심으로 소통행보를 이어가는 원만한 인품을 가진 후보가 협회장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전했다.

대형 증권사 대표는 “사실 스펙과 공약면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경쟁하신 분들이고 업계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을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결국 당선 이후 누가 진정한 있게 업계와 소통하며 공약 이행을 제대로 해나갈지가 포인트”라고 언급했다.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대표는 “중소형 운용사는 주요 포럼이나 모임 등도 번번이 배제되는 경우가 그동안 비일비재했는데, 일부 협회장 후보는 회원사가 부르면 달려오겠다는 공약까지 내걸어 내심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대한민국 농수산물식품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aT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식품!
이제 aT가 농업인의 터전에서 농업인과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갑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창조농업, aT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한 변화 aT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 대표전화 061-931-1114

스마트車·5G·빅데이터 등 100조... 벤처 육성 '강드라이브'

역동적 혁신경제 新성장산업 투자

올해 스마트자동차, 5세대(G) 이동통신, 빅데이터 등 미래 성장산업에 100조원의 정책자금 투입된다. 또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들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창업에서 성장, 투자자금 회수, 재도전 기회부여 등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기술금융을 통해 20조원의 추가 자금이 공급되고 핀테크를 정점으로 한 전자금융 산업이 새로운 영역으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자금 공급 및 과잉규제 정비를 통해 실무와 금융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선순환 금융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 정책자금 180조 공급 = 정부는 올해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돈은 산업은행 63조원, 기업은행 56조원, 신용보증기금 41조원, 기술보증기금 19조원 등 180조원(보증 60조원 포함)으로 분담된다.

이 가운데 스마트자동차, 5G 이동통신, 빅데이터와 같은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수혜가 예상되는 미래성장산업은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보건·의료, 문화, 교육, 물류 등 유망서비스업과 스마트자동차, 5G 이동통신, 지능형반도체, 빅데이터,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13개 분야다.

아울러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산업은행 15조원)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이 가동되고 기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복합지원이 지난해 6조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된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된다. 이 펀드는 전국 17곳에 들어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돼 구조화된다. 성장사다리펀드와 대기업간 2대 1 매

미래성장산업 13개 분야 집중투자

투자 받기 어려운 中企 마중물로

혁신펀드 조성, 단계별 정책 지원

창조혁신센터에 기술금융 원스톱

재창업지원 융자 5년간 1조 투입

연대보증 면제 확대로 재기 도와

핀테크 정점 전자금융서비스 개편

사전→사후 규제패러다임도 바뀌

액티브X 폐지 은행·증권사 확대

창을 통해 5100억원을 공급하고 지자체와 대기업이 손잡고 900억원을 지원한다.

또 혁신센터 내에는 '파이낸스 존(finance zone)'이 설치돼 창업 상담과 금융상담, 기관별 금융상품과의 맞춤형 연계 등을 원스톱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8조원의 성과를 거둔 기술금융에는 올해 20조원이 추가 공급된다. 기술의 투자가 치 형성을 위해 통합산은이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 육성되고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가 3000억원 조성된다.

◇재창업지원 융자 5년간 1조원 지원 = 정부는



기업들의 창업, 투자뿐만 아니라 성장, 재창업을 돕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우수 창업자에게 부여했던 연대보증면제 대상이 기존 기업으로 확대되고 올해부터는 창업 3년 내 기업 중 신기보의 내부평가등급이 A등급인 우수기업에 한해 가산보증료가 폐지된다.

또 3월부터 신기보의 내부평가 등급이 AA등급 이상인 기업에 대해 보증의무가 자동면제되고 재창업지원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중이라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하는 방안도 상반기 추진된다. 재창업기업에 대해선 향후 5년간 1조5000억원 규

모의 신규자금이 지원된다. 이 돈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재창업지원 융자자금으로 1조원, 신기보의 재창업지원 보증 5000억원으로 마련된다.

◇핀테크 활성화에 2000억 투입... 관련 규제 정비 = 핀테크를 정점으로 한 전자금융서비스도 대거 개편된다. 채널변화를 통한 금융 활성화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핀테크 활성화에 투입되는 돈만 2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으로 전환하고 보안성심사와 인증방법평가위원회를 폐지했다. 또 지난해 카드사 PG사에만 적

용됐던 액티브 엑스(Active X) 폐지도 올해는 은행, 증권사까지 확대기로 했다.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제도도 온라인·모바일에 환경에 맞게 바뀐다. 우선 인터넷은행 설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 직원과 고객 사이에 얼굴을 마주하고 실명을 확인하는 대면 실명확인 의무를 비대면 방식까지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금산 분리 규제 완화 방안 등은 현재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ICT 융합 신사업 창출위해 4조 창조혁신센터 투자 4배↑ 6000억

정부가 올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4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환경 등 신산업 발굴을 위해 약 4조원을 투입하고, 2017년까지 1500개 이상의 고성장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은 15일 '역동적 혁신경제'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대통령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ICT+친환경기술 고부가가치 전환
바이오·나노·재난안전 등 분야 육성

17개 센터 상반기 출범...본격 가동

창업인턴제 도입 기술창업자 5000명

고성장 中企 2년뒤까지 1500개 육성

◇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규모 '4배 늘린' 6000억 = 미래부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지난해 1600억원 규모(4개 지역)였던 창조경제혁신센터펀드(창업·벤처기업 투자)를 전담 대기업, 지자체, 성장사다리펀드 등과 연계해 총 6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업 수요기반의 아이디어 △일반 아이디어 △기술창업 등 아이디어 수준과 숙성 단계에 맞춰 다양한 트랙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화 트랙을 통과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영 TV 홀소평, 우체국 소평 등을 활용한 마케팅 지원은 물론 글로벌 진출, 현지 지원(미국, 베이징 등)도 병행된다.

◇ICT·바이오·재난 등 신산업 창출 4조 투입 = 정부가 약 4조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환경, 재난,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먼저 기존 주력산업에 ICT·친환경기술 등을 융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고 ICT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선도형 연구개발(R&D) 분야에 704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유망한 디지털콘텐츠 기업 육성 차원에서 2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된다.

또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는

미래부 방통위 중기청 업무보고 내용

선제적 미래대비 투자

- 1 제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공장 1천개 보급
- 2 사이버 안전 대전단 등 보안 산업 신시장 창출 (2017년까지 2배 규모)
- 3 디지털 영토 확대를 위해 SW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2014년 20개 → 2017년 50개)
- 4 2017년까지 바이오의약품 5개, 융합 의류기기 2개 출시 목표로 올해 5,600억원 투자
- 5 태양전지·연료전지 등 기후변화 기술개발(1조원 투자) 및 실증(친환경 에너지 타운)
- 6 40여개 공공 연구기관이 기업의 기술수요를 지원,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 7 5G 논문건수 위주 평가 금지 및 정률특허 최소화
- 8 다채널방송(MMS), 스마트 미디어 등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

- 9 칸막이식 방송규제의 총량제 개선 및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5600억원이 투입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에너지 시장 확보를 위한 R&D 분야에는 무려 1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나노기술과 재난 안전 기술 개발에도 각각 5800억원, 6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창업생태계 정착·중견기업 견고화 = 중소기업청은 올해 업무 방향을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정착 △견고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창조경제의 서민경제 확산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잡았다.

우선 창업선도대학은 올해 28개로 늘리고, 벤처기업 연계 '창업인턴제'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술창업자 5000명을 양성시키겠다는 목표다.

또 중견기업 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고용창출 역량이 뛰어난 '고성장 중소기업(3년 평균 고용·매출증가율 20% 이상)' 육성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약 1조200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현재 500개사에 불과한 고성장 중소기업을 2017년까지 1500개 이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당신이 있어 새해가 더 아름답습니다



"고3 일년,
후회 없이 보낼 거예요"



"가게 열심히 해서
막내 시집 보내야죠"



"땀 흘린 만큼 더 큰 수확이
따라오는 법이죠"



"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열정과 집념을 가지고
각자 자기분야에서 자기역할을 다하는 사람
당신이 있어 올 한 해도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 STAR ALLIANCE MEMBER

“올 수출 6000억 달러”...中 교역지원 ‘차이나데스크’ 설립



해외진출 촉진으로 우리경제의 역동성 제고

차이나 데스크 설치, 원스톱 지원 원산지 관리·비관세장벽 해소 등 종합지원	제조업 혁신 3.0추진 중기 1만개 스마트공장 보급 (2020년까지)
진출분야 다양화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ICT 등	전자상거래 수출기반 확충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역동적 혁신경제 FTA·수출 전략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업무보고의 핵심 정책은 무역 역량 확대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스마트공장 확산을 꾀한다는 전략도 핵심 정책에 포함돼 있다.

15일 발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타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중국과의 무역 업무를 지원할 ‘차이나 데스크’를 오는 3월까지 무역협회에 설치할 방침이다.

차이나 데스크는 중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에 원산지 관리, 수출시장 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의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게 된다. 또 FTA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에 안내·컨설팅을 지원하고 원산지 기준 부합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산업부는 올해 수출 6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5731억 달러, 교역규모 1988억 달러, 무역흑자 474억 달러로 무역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만큼 올해 목표 달성에 무난하다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정상외교와 고위급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계약 등 100억 달러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를 수주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해 올해만 3000여명의 청년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등 해외 취업·창업·인턴 진출 지원 목표 또한 작년 1만650명에서 올해 1만2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 무역상사를 추가로 지정하고 무역·기술 프로젝트 매니저(PM) 100여명의 양성을 지원하는 등 정책을 통해 올해 2400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중

소·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작년 34%에서 올해는 35%로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산업부는 미국 아마존이나 중국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등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입점을 늘리고 전자상거래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수출 방식 활성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산업부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조 현장과 결합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미래형 공장인 스마트공장을 1000개로 확대한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된 스마트공장은 현재 200~300개가 가동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해 1000개를 시작으로 2017년 4000개, 2020년 1만개까지 스마트공장이 늘어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뿌리산업의 경우 업종별로 적합한 스마트공장 모델을 만들어 개별 기업별로 보급할 방침이다. 자동차나 제약처럼 단일한 공급체계가 움직이는 분야는 대기업이 중심이 돼 자발적으로 스마트공장 전환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사물인터넷과 3D프린팅 등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첨단 융합기술을 개발토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시험환경)를 구축하고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설익은 의료규제 완화...국민건강은요?

안전규정 없는 문신시술 허용
복지부, 뒤늦게 실태파악 나서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논란

과제명	복지부가 추진중인 규제기요틴 안전		
	비의료인 예술 문신 시술 합법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명문화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시술 허용
복지부 검토 사항	예술문신 허용을 위한 문신사법 제정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 검사기기 명확화하고 이를 수용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카이로프랙틱사 보건의료 직역 전문화, 세분화 모색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의료 규제개혁’ 방안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를 만들어 질병, 의료행위 등 여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에 무리한 규제개혁을 요구하면서 규제를 완화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의료행위로 암암리에 행해져 온 문신 시술 합법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의 카이로프랙틱 시술 허용 등 의료 규제 개혁 방안이 나왔다.

문제는 정부가 실태 파악도 없이 규제 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문신은 의료행위로 규정돼 있으며

문신을 시술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문신에 대한 안전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술공간이나 사용하는 염료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부처가 없다.

문신은 바늘로 사람 피부를 직접 찔러 먹물 등의 물감으로 그림이나 글씨, 무늬를 새기는 행위다. 그 과정에서 감염, 통증, 피부 근육 면역 관련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일반인이 문신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대해 의료단체는 우려감을 표했다.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문신 시술행위의 경우 침습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의료행위보다 위험하다. 때문에 에이즈(AIDS), 간염, 매독 등 각종 전염병에 노출

될 가능성이 커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한 감독은커녕 더욱 부추기는 모양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문신 합법화 발표 이후 이제서야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서도 현재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한의학과 현대의학은 질병 개념, 병을 진단하는 방법, 치료원리가 다르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규제 개선이라면 오토바이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대형트럭면허를 주는 것과 같다.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부미 기자 boom@

유로그룹 의장 “유로존 경제 회복하려면”

The EU Economy in 2015 – Will It Take Off?

2015년 1월 15일(목)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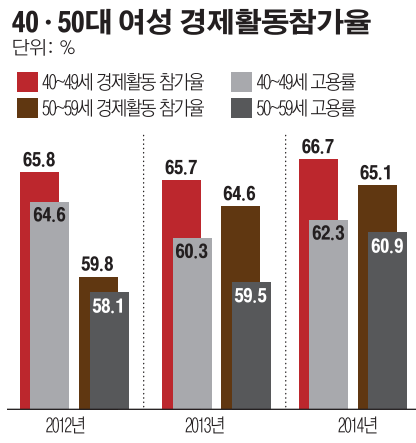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 겸 네덜란드 재무장관이 1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초청강연에 참석해 “2015년 유럽경제, 회복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유로존의 경제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그는 금융위기 이후 유로존의 경제회복을 위해서 금융감독권의 강화, 저인플레이션의 회복, 노동시장의 개방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태현 기자 holjiak@

4050 여성 10명중 6명 일터로 혼선에 갈등까지 허술한 靑 참모진

여성 고용률 1999년이후 최고
시간제 일자리·경단녀 대책 영향



집에서 육아나 가사를 맡아 온 가정주부들이 일터로 나오면서 40대와 50대 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15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0대와 50대 여성 고용률은 각각 65.1%와 60.9%로 관련 통계 기준이 변경된 1999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뿐 아니라 실업자까지 합친 경제활동참가율도 역대 최고다. 40대 66.7%, 50대는 62.3%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51.3%)과 고용률(49.5%)이 모두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데에는 일터로 나온 중년 여성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가사나 육아, ‘워킹맘’ 등 상태에 있던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40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3만4500명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50대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3만5400명 줄었는데, 전년 대비로 이 연령대 여성 비경

활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40·50대 중년 여성과 더불어 30대 여성의 고용시장 진입도 늘고 있다. 지난해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58.4%와 56.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비경제활동인구 감소폭은 7만6600명으로 2006년(-9만33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가사와 육아 수행 비율이 높은 30대부터 50대까지의 여성 고용이 늘어난 데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경력단절여성 고용 대책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상영 기자 sympark@

‘자화자찬식’ 보고서 내용 부풀려
부속실 ‘경호일정’ 정보공유 안해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에서도 일반인의 생각과 달리 허술한 업무 진행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예상으로 잦다. 때로는 대통령의 짜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선 참모진의 보고 행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자주 들린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사건이 터지면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수석실은 결과를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면 보고가 아닌 보고서 형태로 이뤄질 땐 대개 부속실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보고서의 내용이 때로는 날짜나 시간이 틀리는 등 빈틈 투성이에 A4 한 장으로 압축할 수 있는 내용을 10장짜리 보고서로 부풀려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내용도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 잘 해결됐다’는 등 자화자찬 식으로 꾸며 주변을 뽐냈게 한다고, 이런 보고서를 부속실에서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가 꾸지람을 들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는 전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말 누가 볼까 민망할 정도의 자화자찬식 보고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쓸데없는 내용들로 양을 늘려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정호성 비서관이 이끄는 제1부속실과 안봉근 비서관이 수장으로 있는 제2부속실 간의 비협조적인 업무 관행도 개선될 점으로 꼽히고 있다.

1부속실은 대통령의 공식 일정, 2부속실은 비공공 일정을 담당하는데 서로의 영역을 잘 건드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부속실 간 일정을 공유하지 않아 대통령 경호팀도 우왕좌왕하는 등 혼선이 일어난 적이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익중 기자 zerg@

정책 돋보기

건설업체 “환영” 기업형 임대주택 수요자 “비싼 월세에...”

정부가 13일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방안(뉴 스테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공급자인 건설업체들은 이번 정책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 수요자인 일반 임차인들은 ‘비싼 월세에 살라는 거냐’는 식의 차가운 반응을 보인다.

내용을 보면 수급이 간다. 이번 대책의 정확한 명칭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이다. 이름만 보면 수요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골자는 건설업체에 싼 값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금융·세제 등

을 과격적으로 지원해 현재 1~2%에 불과한 수익률을 5~6%까지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주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이라는 말만 들어도 손사래를 치던 건설사들에 ‘당분간 땅을 잡고 해엄칠 수 있는 얇은 물’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업체로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

반면 수요자 처지에서는 별반 반가운 내용이 없다. 정부가 추산한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1억원에 월세는 지방 45만원, 수도권 60만원, 서울 80만원 선이다. ‘중산층이 감내할 수준’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지만 이번 방안에서 밝

힌 중산층인 소득 5분위의 월소득은 354만원인 것을 보면 세입자들의 수입이 세밀하게 고려된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이들에게 100만원에 육박하는 월세가 ‘감내할 수준’인지는 의문이다.

당장 지금 비싼 전·월세로 고통받는 수요자들이 이번 대책에 보내는 시선은 싸늘하다. 시장에서는 단지 ‘건설사들의 공급과잉 물량 해소용’이라고 보는 냉소적 분석도 나온다. 발표된 대책이 정부의 말처럼 실제 중산층의 주거혁신으로 이어져 비판을 떨쳐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교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모니터링 수준을 높이는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올 상반기 안에 내놓을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 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 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학대 예방과 관련한 보육 교직원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예정이다.

또 보육 보조교사를 활성화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일 방

안도 모색한다. 특히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한다.

지난 8일 인전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에 김치를 안 먹는다라는 이유로 보육교사가 아동을 구타한 CCTV 영상이 퍼지면서 온 국민이 공분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인전의 어린이집을 지자체, 관할 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한 뒤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 자격 취소 등 즉각적 행정처분을 가할 예정이다.

김부미 기자 boom@

親李계 신년회동 돌연 연기

새누리당 내 친이명박(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15일로 예정됐던 신년 회동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초부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등을 놓고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우 전략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함께 내일로’는 당내 친이계 전·현직 의원 60여명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이 모임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지금은 특별한 활동 없이 명맥만 유

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근현 사무총장과 안영률 전 의원 등 30~40여명이 참석하는 만찬을 갖기로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박근혜(전박)의 독주와 실패가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이가 점권 중반 차기 친이 주자에 대한 힘 모으기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갖는 회동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의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당내 친이계 의원들의 신년 모임도 함께 관망 예정이던 마당놀이 일정의 문제를 들어 직전에 취소됐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번 돈’은 가릴까 말까… ‘쓴 돈’ 부풀릴까 말까…

예체능인 ‘선팅지갑’… 탈세의 유혹

‘원천징수’ 월급쟁이 비해 소득·경비 자진신고 의존
장근석, 탈세의혹 추징금… 애매한 과세체계 논란

‘한류스타’ 장근석(28)씨와 관련 연예계 회사가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수신했던 세금의 추징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세금납부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월급쟁이는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유리지갑’인데 반해 예체능인에 대한 과세는 본인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항상 탈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세금 납부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와는 전혀 다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소득을 사후에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과세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소득이 많게 신고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매기고, 소득이 적다고 하면 세금도 줄어든다. 이들과 근로자의 또 다른 차이는 업무와 관련된 경비를 인정받는다는 점이다.

한 연예인이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이 총

10억원이고, 사용 경비가 6억원이면 4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연예인의 경우 의상비, 코디, 운전기사 등 연예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 포함된다. 운동선수는 야구배트 등 각종 장비나 체력단련비, 코치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 역외탈세 사실이 드러난 장근석의 경우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 신고한 사례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가수들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연이나 각종 행사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채 출연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가까운 일례로 지난 2011년 가수 인순이와 배우 김아중이 각각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것이 국세청에 적발돼 수억원씩을 추징당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논란이 된 배우 송혜교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사례가 대표적이다. 송씨는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총 54억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빙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통해 송씨가 과소 신고한 세금액은 3년간 총 25억5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송인 강호동도 2011년 세금 과소납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

경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해 가산세 등을 포함 7억원가량의 추징세를 내야 했다.

이처럼 연예인의 소득신고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면 ‘경비 부풀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발견된다고 세무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반면 연예인 입장에서는 과세 체계가 애매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 때문에 예전에는 별 탈 없이 접수됐던 소득신고 내용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서 연예인 입장에서는 이미지 실추에 더해 거액의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등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연예인들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까지 수년치를 파악해 기존에 신고된 소득액보다 더 많은 돈을 썼을 경우, 이 자금원을 역추적하는 등 탈세 사실을 밝히기 위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국장은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고 영향력도 크다”며 “보다 꼼꼼히 소득을 신고하고 납세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싼 담배는 여기뿐…



시중 담배값이 4000원대로 올랐으나 면세 담배는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인산분비 적용되지 않은 가운데 14일 오후 제주공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내국인 면세점의 담배 판매 코너 앞에 담배를 사려는 고객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다. 연합뉴스

“미등기 재벌총수도 보수 공개”

법 개정안 발의… 경영실패·불법행위 책임 강화

미등기임원도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수공개 회피를 위해 등기임원에서 사퇴했던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연봉도 공개된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춘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등기임원이 아니라도 보수총액 기준으로 상위 5명에 해당하면 개인별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겠다는 취지다.

앞서 2013년 법 개정으로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들의 개별보수가 지난해 처음 공개됐지만, 보수공개 대상이 등기임원으로 한정돼 법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삼성가의 세 자녀 중 이재웅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은 미등기임원으로 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용진 부회장 등은 등기임원에서 사퇴하기도 했다.

일부 재벌총수 일가가 고액연봉을 받고 최고경영자 인사권 등 적잖은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등기임원직에서 사퇴해, 경영실패나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셈이다.

김 의원은 “미국의 경우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인 상장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액 연봉자 3인의 보수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일본도 보수총액이 1억엔을 넘으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를 공개토록 돼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의 회사경영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기춘 의원을 비롯해 같은당 전순옥, 이학영, 이상직, 최민희, 임수경, 이개호, 원혜영, 김승남, 정성호, 김광진, 김현미, 박민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긴장 반 설립 반… 나는 어느 반?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14일 서울 흥제동 흥제초등학교에서 입학예를 앞둔 어린이들과 엄마들이 등교하게 될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서울 시내 601개 초등학교가 신입생 예비소집을 했으며, 학교에서는 2월 말까지 신입생 학급 편성을 하고 신입생들은 학교 홈페이지나 3월3일 열리는 입학식에서 반 배정을 확인할 수 있다. 신대현 기자 holjak@

“MB정부 규제완화 ‘의정부 火’ 키웠다”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국민안전 외면”

野 “박근혜 정부서도 이어져” 비판

의정부 화재사고 등 최근 잇단 안전사고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분별한 규제완화 때문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안전처를 신설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안전을 포함한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고는 지난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하면서 여러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대폭 완화한 점이 화를 키웠다. 건물 간격은 토지거래에서 최소 50cm만 떨어지면 되고, 스프링클러는 11층 이상 건축물만 의무적

으로 설치해야 하며, 30층 미만 건축물 가연성 스티로폼 단열재 사용도 가능토록한 것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안전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의 분당 야외공연장 환풍기 붕괴 사고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대상 범위를 완화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축제에 안전매뉴얼을 포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적용대상이 이명박 정부 시절 관람객 1000명에서 3000명

으로 느슨해져, 3000명 이하 행사였던 분당 야외공연은 안전대책이 미비했다.

같은 해 4.5월에 잇달아 발생한 세월호침몰 사고와 상왕산리더 지하철 추돌사고의 경우도 이명박 정부에서 선박 수명제한을 늘리고 노후 전동차에 대한 내구연한은 폐지한 것이 사고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 20년이던 선박 수명제한을 점차 늘려 30년까지 규제를 풀었고, 노후 전동차 내구연한 규정은 아예 삭제해버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소량의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관리규정에서 예외를 인

정토록 하는 등 안전 관련 규제완화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4개월여 만에 ‘규제 비용 총량제’, ‘규제 일몰제’를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성과에만 급급해 원칙도 기준도 없는 규제완화 방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인식 전환이 없다면 또 다른 참사를 막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금호타이어 근로자 자살시도 중태

임단협 교섭위원으로 참여

금호타이어 노사 임단협의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근로자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병원에서 금호타이어 근로자 A씨가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즉시 다른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다른 동료와 다름 끝에 다져 지난 8일 병

원에 입원한 A씨는 자살 시도 전 다른 동료에게 폭행 사건 과정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변 인물과 병원 관계자, 노조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조함원끼리 이견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도 파악 중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자체적인 진상 파악에 나섰다.

유혜은 기자 euna@

취업 돌보기

기업 70%, 인적성검사 필요성 느껴

기업 10곳 중 7곳은 채용 시 인적성검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463명을 대상으로 ‘인적성검사 필요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69.6%가 “느낀다”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장 많이 느끼는 상황으로는 ‘서류, 면접만으로 제대로 평가가 안될 때’(41.5%,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직원이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25.1%), ‘조기 퇴사자가 발생할 때’(22%), ‘직원이 인재상과 맞지 않을 때’(20.1%), ‘직원의 애사심 등이 부족할 때’(11.7%) 등이 있었다.

실제로 현재 채용 시 인적성검사를 시행하는 기업은 5곳 중 1곳(16.4%)이었다. 검사는 ‘전문기관에 대행’(60.5%)을 맡

인적성검사 필요성 여부
단위: %

필요성 여부	비율 (%)	인원
느낀다	69.6%	322명
느끼지 않는다	30.5%	141명

※전체: 436명

기는 경우가 ‘자체적으로 진행’(39.5%)하는 것보다 더 많았다.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직무 적합도, 핵심역량’(63.2%, 복수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성격’(61.8%), ‘조직 적응력, 협력’(57.9%), ‘사회성’(55.3%), ‘가치관’(39.5%), ‘창의력’(25%), ‘판단력’(21.1%), ‘리더십’(18.4%) 등이 있었다.

유혜은 기자 euna@

능장 부리다 71억 날린 공정위

하루 늦은과징금 송달 효력상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건을 적발하고도 제 날짜에 통지하지 않는 실수를 해 기업으로부터 71억원의 과징금을 받아낼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15일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발단이 된 사건은 지난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내부 IT시스템 입찰과정에서 있었다. 당시 포스코ICT는 다른 업체

를 둘러러로 세위 공사를 따냈고, 공정위는 이 같은 혐의를 파악해 포스코ICT에 과징금 71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런데 실수가 생겼다.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 의결서를 작성한 것은 2013년 11월 5일이었지만 이를 포스코ICT에 전달한 7일 뒤인 12일이였다. 임찰이 있었던 2008년 11월 11일에서 5년을 넘긴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달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서가 효력을 잃은 것이다.

유종현 기자 lamuziq@

수수료 후려치다 걸린 티브로드

공정위 과징금 5억1600만원 부과

외주업체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유선 방송업체 티브로드를 당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고객센터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티브로드홀딩스와 계열사인 한빛방송, 서해방송에 시장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인 티브로드홀딩스는 2009년 4월 한빛방송, 서

해방송 등 자사 소속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고객센터의 애프터서비스(AS) 수수료 감액을 지시했다.

고객센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방송·인터넷·전화 등과 관련된 소비자 서비스를 하는 독립사업자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한편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가 최근 3년 이내 답합 등 법 위반 전력이 3회 이상이고, 누적된 벌점이 7.5점으로 고발 조치 기준인 6점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성영 기자 sympark@

KT ENS 대출사기·신한銀 불법 계좌조회·모뉴엘 부실대출…

금융사 임직원 150여명 이달안 징계

금감원 작년말 검사 완료
부원장 공백으로 늦어져
임시회의 열어 수위 결정

금융감독원이 KT ENS 대출사기와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모뉴엘 부실 대출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사안에 대한 징계 대상자만 150여명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감원은 통상 한 달에 두 번 여는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이라도 이달 중 관련 징계를 모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을 열고 신용평가사 '등급 쇼팽'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다. 다만 KT ENS 대출사기,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모뉴엘 파산 등 주요 안건은 이날 상정되지 않는다.

주요 안건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달 중 임시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부원장 인사가 늦어져 공백이 있었는데 다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엔 징계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재심이 한 달에 두 번 열리는데, 이달 8일, 15일이 아니라면 임시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연말 KT ENS 대출사기 건을 비롯해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모뉴엘 파산 건 등에 대한 검사를 끝

냈다. KT ENS 대출사기 건만으로 100명에 가까운 임직원이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KT ENS 협력업체 대출금액 16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신한은행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대규모 징계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파산 선고를 받은 가전업체 모뉴엘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10여곳에 대해서도 부실심사 사례를 상당수 적발하고 징계수위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외환·국민·농협은행 임직원 수십명이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불법 계좌조회 검사 건 역시 서둘러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

장과 가까웠던 전현직 직원, 가족, 고객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20여명에 대한 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조직적인 개인정보 조회 등 의혹을 제기해 5주간의 추가 검사를 진행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KB사태 등을 거치며 운영 절차 및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재심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감원은 제재심 속기록 요약본 공개, 20명 안팎의 제재심 민간위원 풀(pool)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제재심 개선 방안을 마련,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양측은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kimji@

SC은행, 베트남에 '사랑의 집짓기'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해외봉사단 '아이캠프(Eye Camp) 원정대'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13개 성(城) 중 가장 극빈 지역으로 꼽히는 티엔장성에서 시각장애 퇴치운동 및 건축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박형근 SC은행 상무(가운데) 등 임직원과 대학생 총 80여명으로 구성된 아이캠프 원정대는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으로부터 아기를 수 있는 시력장애 퇴치를 위해 8일 동안 총 8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현지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또 인근 초등학교를 찾아가 점자 가방을 기증하고 손 씻기 운동, 비누 만들기 등 위생교육도 진행했다.

사진제공 SC은행

몸집 키우는 J트러스트
SC저축은행도 삼켰다

아주캐피탈까지 인수엔 업계2위

일본계 자금인 J트러스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SC저축은행 인수를 승인 받았다. J트러스트는 지난 2011년 국내에서 대부업을 시작한 후 최근에는 저축은행, 캐피탈사 인수를 통해 시장 영역을 넓히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J트러스트의 SC저축은행 주식 2000만주(100%) 취득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J트러스트가 자회사사 통해 보유한 천예저축은행의 자산 1조2700억원과 이번에 인수한 SC저축은행의 자산 3500억원, 현재 인수 추진중인 아주캐피탈의 자회사 아주저축은행의 자산 7000억원까지 합치면 자산 규모는 2조3000억원을 웃돈다. 이는 저축은행 업계 2위권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융권에서는 J트러스트가 인수작업을 매듭짓고 3개 은행을 통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J트러스트는 지난해 6월 부터 SC저축은행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 J트러스트는 아주캐피탈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라도 선정된 바 있다. 캐피탈은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J트러스트는 해당 캐피탈을 인수한 뒤 금융당국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박엘리 기자 ellee@

“금융자산 많을수록 투자보단 상속”

100억 이상 고객 47% 달해
10억~30억선 2순위로 밀려

보유 금융자산이 30억원이 넘는 고액자산가들은 투자보다 상속과 증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삼성생명이 '삼성패밀리오피스' 설립 3주년을 맞아 고객 1500여명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유자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상속 및 증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의 고객의 47%는 상속·증여에 가장 관심이 많았고 나머지는 금융투자(28%), 종합소득세(10%), 부동산투자(3%)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자산가들 역시 상속·증여(41%), 금융투자(20%), 종합소득세(10%), 부동산투자(9%) 순으로 관심이 많았다.

30억~50억원 사이의 고객도 상속·증여(34%)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자산이 더 많은 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투자(30%)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금융자산이 10억~30억원인 고객은 금융투자(29%)가 가장 큰 관심사였고 상속·증여(28%)는 2순위였다. 10억원 미만인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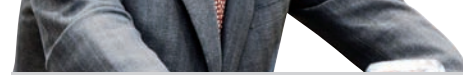
액들은 절반 이상이 금융(38%) 및 부동산(18%) 투자에 더 관심을 가졌다.

삼성생명은 "초부유층일수록 자산의 증식보다 상속 및 증여를 통한 기업 승계에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유층들은 최근 지속되는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산 가운데 예금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억원 이상 초부유층은 예금액이 38%였고 주식·채권(36%), 보험(14%), 펀드·신탁(12%) 등이 뒤를 이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올해 수출기업에
80조 금융지원”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작년 목표액보다 5%이상 늘려
해외건설·플랜트에 27조 '집중'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올해 우리 경제의 추가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8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목표액보다 5% 이상 증가한 규모로 해외건설·플랜트 산업에 27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이 행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해 국가 전략수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출·투자 56조원, 보증 24조원 등 총 80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업종별로는 해외건설·플랜트 부문에 27조5000억원이 지원되고 선박과 자원개발에도 각각 14조5000억원, 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안철우 기자 acw@

변화보다 안정 택한 권선주 행장
기업銀 2100명 원샷인사…서형근 부행장 내부 발탁

기업은행은 14일 임직원 2100여명에 대해 원샷인사를 단행했다. 권선주 행장은 이번 인사에서 '변화'보다 '안정'에 방점을 뒀다.

우선 신입 부행장에 서형근(사진) 경동지역본부장이 발탁됐다. 서 부행장은 지난 2013년 1월 신설된 경동 지역본부장을 맡으면서 하위권이었던 경영실적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린 능력을 인정 받았다.

IB본부장과 마케팅본부장을 겸직했던 시석중 부행장은 마케팅본부만 맡게 됐고, 김영규 기업고객본부 부행장은 IB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힘내라! 대한민국' 브랜드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개인고객의 지평을 넓힌 정재섭 개인고객부장은 남중지역본부장에 임명됐다.

또 탁월한 영업력과 체계적인 고객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배용덕 선풍역 지점장은



강동·강원지역본부장에, 공단지역 여신전문가인 방군섭 남동공단기업금융미래지점장은 경서지역본부장에 각각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선제적 여신관리 능력이 뛰어난 배동화 대구여신심사센터장이 대구·경북지역본부장으로, 부산지역에서 탁월한 필자 영업과 따뜻한 만민노경평이 나있는 이영희 부산지점장이 부산 지역본부장으로 선임됐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오른 포스트(PoST) 차세대시스템 투입력을 IT시스템 안정화와 고객정보보호 부문에 재배치하고 벤처금융팀을 신설하는 등 기술금융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2015년
새로운 회계연도,
효과적인
회계관리의 시작은
더존 프로그램입니다

더존 프로그램은 회계, 세무신고, 인사급여 관리부터 판매, 구매, 재고관리와 생산, 원가관리까지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15만 기업이 사용하는 국가대표 프로그램입니다.

더존 DUZON
Good, Better, Best IT그룹



www.duzon.co.kr

✓ **확인해보세요**
더존 프로그램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유

Q1. 쉽고 단순한 회계 프로그램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 주요 거래자료를 자동으로 수집, 분개하고 전표입력까지 완벽히 해주므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지금 흐름까지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프로그램 내에서 발행, 자동 회계 처리되며, 전자청구서, 전자독촉장으로 수금까지 지원하므로 자금관리가 보다 정밀해집니다.

Q3. 언제 어디서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나요?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보안/보존, 운영비용도 최소화합니다.

Q4. 회계 프로그램, 기업들이 왜 더존을 선호하나요?

가능, 사용편의성, 확장 성능성은 물론, 업계에서 유일하게 수백 명의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와 전문 상담원이 배치된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실한 사후관리와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 회계관리 □ 세무조정 □ 인사급여 □ 영업관리 □ 생산관리 □ 외주관리
□ 구매관리 □ 자재관리 □ 무역(수출입) □ 서비스관리 □ 공사현장관리
□ 전자세금계산서 □ 바로수금서비스 □ 금융CMS서비스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국민을 먼저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

나눌수록 더 행복한* 적금

나눌수록 세상은 더 행복해지기에
KB사랑나눔적금이 기부와 봉사의 기쁨을
우대이율로 돌려드립니다.
나눌수록 더 행복한 세상,
고객과 KB국민은행이 함께합니다.

[KB사랑나눔적금]



KB사랑나눔적금

기부금: 기부왕 우대이율 및 봉사왕 우대이율 등록 건당 500원을
기부금으로 출연하며 기부비용은 KB국민은행이 부담합니다 (1계좌당 최대 1,000원)

-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공동 명의 불가)
- **저축금액:**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원 단위)
- **상품유형:** 정액적립식 예금
- **계약기간:** 3년제
- **세제관련:**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가능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용이율 (세금공제 전, 2014.12.17 기준)

* **기본이율:** 연 2.8% / **우대이율:** 최고 연 1.0%p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 충족 시 적용)

[기부왕]: 연 0.3%p 우대 ('계약기간 중 기부 또는 후원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봉사왕]: 연 0.3%p 우대 ('계약기간 중 봉사활동을 실시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천사 1004]: 연 0.4%p 우대 (적금을 만기 해지하는 시점의 총 저축금액(원금)이 1,004만원 이상인 경우)

* **최종이율:** 최저 연 2.8% ~ 최고 연 3.8% (최고이율은 기부왕, 봉사왕, 천사 우대이율 모두 적용 시)

※ 봉사활동 인증관리시스템(VMS, 1365 등)을 통해 출력한 인증서 외에 수기로 발급한 인증서는 봉사왕 우대이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비스는 각 상품의 특약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제공하며, 특약 변경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상품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1599-9999)로 문의하시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662호(2014.12.16)

 **KB 국민은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주도권 경쟁 시동



쉐보레 ‘볼트’ 3분기 북미 출시
1회 충전으로 640km 주행
현대차 ‘쏘나타’로 도전 나서
전기 18km 주행… 202마력



GM의 쉐보레 ‘볼트’(왼쪽)와 현대차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쏘나타.



2015 북미국제오토쇼(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의 주도권 싸움 시작을 알렸다. 연내 출시가 붐몰을 이루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대중화 바람이 불 전망이다.

이번 모터쇼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부스를 꼽으라면 단연 쉐보레다. GM의 쉐보레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코보센타에서 열린 ‘2015 북미국제오토쇼(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전기차 ‘볼트’의 후속 모델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볼트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디트로이트에 본사를 두고 있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은 점도 있지만, 당사 상용화가 가능한 친환경차가 관람객들을 사로

잡았다. 차세대 볼트는 전용 리튬 이온 배터리와 모터 외에 4기통 1.5ℓ 직분사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다. 이에 따라 순수 전기 모드로 80km, 1회 충전으로 64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GM은 볼트를 올해 3분기 북미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쉐보레는 또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장거리 주행 순수 전기차 콘셉트카인 볼트도 깜짝 공개했다. 이 차는 전기차 볼트와 스파크EV에 적용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1회 충전으로 321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 특히 3288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을 통해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GM의 안방에서 현대자동차도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54마력을 발휘하는 누우 2.0ℓ 직분사(GDI) 엔진과 50kW 전기모터, 전용 6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시스템 최대출력 202마력을 자랑한다. 또 9.8kWh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장착해 순수 전기차 모드만으로 35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복합연비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할 때 휘발유 리터당 18km이상(40MPG)이다.

정외선 현대차 부회장이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던 BMW도 오는 3월 국내 출시를 앞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i8’을 공개했다.

i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고성능을 발휘하는 스포츠카형 차다.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의 조화로 최고출력은 362마력에 달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4초만에 주파할 수 있다. 연비는 유럽연합(EU) 기준으로 47.6km/ℓ에 달해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모터쇼에서 글로벌업체들의 경영진들은 앞다퉈 친환경차 출시 계획을 밝혔다. 디터 제제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은 모터쇼에서 “2017년까지 10개의 친환경차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마크 필즈 포드 회장도 “2017년까지 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10종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디트로이트(미국)=김범근 기자 nova@

따뜻한 물 나오는 LG전자 ‘직수형 온정수기’



LG전자는 온수 기능을 넣고 편의성을 강화한 직수형 온정수기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LG 온정수기는 직수형 정수기에 1ℓ 용량의 ‘스테인리스 진공 온수탱크’를 추가해 90도의 온수를 제공한다. 편의성을 고려해 120㎖, 500㎖, 1000㎖ 등 용량별 정량출수 기능을 적용했다. 렌털료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월 2만1900원(5년 기준)이다. 헬스케어 매니저가 3개월마다 방문해 무료, 출수구 등 물이 지나는 모든 부위를 전기분해로 소독하는 ‘인사이드케어’, 필터교체, 제품점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통위, 중고폰 선보상제 조사

방통통신위원회가 14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본사 및 전국의 주요 유통망 등을 대상으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이용자의 이해도 조사가 있었다.

방통위의 지난주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가 ‘특정 고가요금제’·‘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및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추후 분쟁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8개월 이후에 형성될 중고폰 가격이 불명확함에도 미리 현재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해 제공한 측면이 있는 등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인호 기자 kangih@



인도 전락차 i20

현대차그룹 “中 11%·印 9% 볼륨 키운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신형 시장에서 고속 성장 전략을 세웠다. 연간 판매 목표인 820만대 달성 여부도 이들 시장의 성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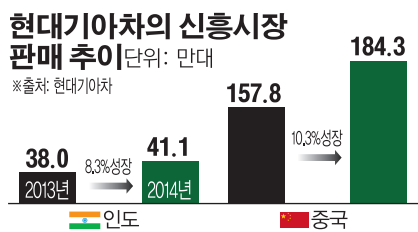
15일 현대기아차가 따르면 이 회사의 올해 중국과 인도 시장의 판매 성장 목표는 각각 11%와 9%다. 현대기아차가 올해 국내 판매 목표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은 것을 고려하면 신형 시장의 성장 목표는 가파른 수치다.

현대기아차의 올해 중국 판매 목표인 205만대는 연간 전체 판매 목표의 25%에 달하는 수치다. 중국 시장의 성장 여부에

올해 신형시장 전략 세워 연 820만대 판매 달성 ‘키’

따라 현대기아차의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현대차의 중국 4·5공장이 준공되는 2017년에는 이 회사의 중국 판매 비중은 30%대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중국에서 184만 3000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보다 10.3% 성장할 수 있다. 베이징현대차는 114만 7000대, 동평위예다기아는 64만 6000대를 각각 판매했으며 나머지는 국내 수출 물량이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친 시장 개혁정책을 펴고 있는 인도시장에서도 현대차는 성장 목표는 가파르다. 현대차는 지난해 인도에서 41만1000대를 판매했다. 전년 대비 8.3% 성장했다. 마힌드라(-12.0%), 토요타(-8.5%), 폭스바겐(-24.3%) 등의 지난

해 인도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현대차의 인도 시장 성장세는 괄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대차는 인도에서 ‘엘리트 i20’과 ‘엑센트’가 소비자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엘리트 i20 크로스 모델을 새로 선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신 공장 설립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형 시장에서는 현지 전략 차종의 강화 전략으로 성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질소 누출 사고에… LG디스플레이 ‘OLED 대중화’ 삐끗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LG디스플레이의 올해 사업 계획에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를 ‘OLED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자 했던 LG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 생산 차질로 OLED 사업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12일 발생한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현재 OLED 패널을 생산하는 E3라인의

가동을 멈춘 상태다.

질소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곳은 LG디스플레이 경기도 파주 사업장 P8공장 내 E3라인이다. P8공장은 8세대(2200X1250mm) 유리기관을 이용한 TV용 대형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이 가운데 E3라인은 OLED 패널을 만든다.

이번 사고로 전체 E3라인 작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OLED 패널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3라인은 유리기관 투입 기준 월 생산능력이 8000장, E4라인은 월 2만6000장이다. LG디스플레이는 올 연 말까지 총 3만4000장의 생산능력을 확보,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업체에 OLED 패널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E3라인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지면 OLED 사업

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E3라인 재가동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E3라인 전면 작업 중지는 OLED 패널 생산에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이는 중국 등 해외 거래선과의 계약 및 OLED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ty@

삼익악기 美 몬스터 손잡고 영상·모바일 시장 진출한다

악기시장 수년째 지지부진
신규 사업으로 만회 노력
이달 말 국내에 제품 출시

‘악기 명가’ 삼익악기가 올해 정제상태인 악기시장을 벗어나 영상·모바일의 신사업에 진출, 본격적인 내수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익악기는 최근 미국 메이저 영상·모바일업체인 ‘몬스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말부터 영상, 오디오, 모바일 관련 상품을 국내 출시한다. UHD, 3D TV 등을 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는 초고속 HDMI(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케이블 등이 대표적이다. 삼익악기는 그동안 스피커나 악기 액세서리 등 단순 제품을 자회사들을 통해 판매해 온 적은 있지만, 이 같이 전문적인 디지털 제품들을 취급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몬스터는 전 세계 영상·음향 케이블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미국내 대표적인 업체다. 2008년부터 고성능 헤드폰인 ‘닥터 드레’ 등을 제조하며 이름이 알려진 업체로, 삼익악기는 몬스터의 제품들을 들여와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게 된다.

삼익악기 관계자는 “초고해상도 4K 울트라 HD 디스플레이 보급과 고음질 콘텐츠 음원 확산에 힘입어 악기뿐만 아니라 몬스터를 통해 생활가전 분야 관련 상품

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악기와 영상 케이블 외 와이파이가 블루투스 스피커, 스마트폰을 위한 모바일 액세서리 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익악기가 이 같이 신사업에 적극 뛰어 들고 있는 것은 수년째 정체를 보이고 있는 국내 악기시장 상황과 맞물려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이 활발해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의 추이가 나쁘지 않지만, 내수시장 성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재 삼익악기의 매출 비중은 수출 80%, 내수 20% 수준으로 수출부문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삼익악기는 지난해부터 주력인 악기·음향 분야를 근본으로 연계성 있는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섰다. 지난해 말엔 이를 총괄할 디지털오디오사업부까지 신설하며, 신사업 추진 의지를 불태웠다. 이번 몬스터와의 계약은 삼익악기 신사업 추진 노력의 첫 결실이기도 하다.

삼익악기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30억원의 매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한동안 손을 대지 못했던 내수시장에 삼익악기의 승부수가 통할 수 있을 지 관련 업계도 관심있게 지켜보는 모습이다.

음향기기업계 관계자는 “국내 악기업체들이 악기시장 정체와 함께 각기 새로운 길잡이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삼익악기가 올해 첫 승부수를 던졌다”며 “미국 몬스터 제품에 대한 인지도는 국내에서도 크기 때문에 홍보 마케팅 등에 올해 첫 것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 thec98@

이재용 부회장, 새 임원에 어떤 메시지?

임원 합숙 교육 마지막날 만찬행사 참석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 19일 삼성그룹 신입 임원 만찬 행사에 참석해 이들을 격려한다. 이준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14일 수요 브리핑을 통해 “삼성 신입 임원들의 합숙 교육 마지막날에 진행되는 만찬 행사에 이 부회장이 참석해 축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승진한 253명의 삼성 신입 임원은 오는 15-19일까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삼성인력개발원에서 4박 5일간 합숙 교육을 받는다. 삼성은 통상 5박6일간 교육을 진행해왔지만 올해는 하루를 줄였다.

삼성 신입 임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창업 정신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경영이념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 더불어 미션작품 감상법, 공연 관람 에티켓 등 삼성 임원으로서 품위 유지에 필요한 교양 지식을 갖추게 된다. 교육 마지막 날엔 부부 동반 만찬이 예정돼 있다.



이 부회장은 2002년부터 이 행사에 참석해 왔다. 재계는 지난해 삼성그룹이 전반적인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이 컸던 만큼 이 부회장이 이번 만찬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이 부회장은 만찬 건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바뀌어야 하는 시기가.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상징과 같은 ‘위기론’을 꺼내들은 바 있다.

한편,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폐막한 ‘CES 2015’에 참석하지 않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사내방송인 SBC가 제작한 영상을 통해 드론 등 주요 제품과 시장 흐름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효진 기자 js62@

독심자, 7500만달러 수두백신 수출

WHO 산하기구 입찰 수주

지난해 업계 최초로 수출 2억 달러를 돌파한 독심자가 국제기구에 사상 최대 규모의 수두백신을 수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독심자는 세계 최대 백신 수요처 중 하나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범미보건기구(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PAHO)의 2015-2016년 공급분 수두백신 입찰에서 약 7500만 달러(약 810억원) 규모의 수두백신 입찰 전량을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독심자는 이번 수주 분량의 수두백신을 내년 말까지 중남미 국가에 공급한다.

이는 국제기구의 의약품 입찰에서 국내 제약사의 단일 제품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 및 OLED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guty@

2200만 달러에 달했다.

1993년 세계에서 2번째,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독심자의 수두백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높아, 평생 단 한번 접종으로도 강한 면역력을 나타내며 남미·아시아 등지에 20여년 동안 수출되고 있다.

이민택 독심자 상무는 “중남미 국가의 국가확대예방접종계획(EPI)의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예측이 적중했기 때문”이라며 “수두백신은 현재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상태로 수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 주력 수출 제품인 독감백신 수출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독심자는 올해 백신제재 수출액이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인호 기자 kangih@

올해도 설 선물세트는 '실속'

연중 최대 소비 대목인 설을 한 달여 앞두고 유통업계의 표징이 어둡다.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처벌을 강화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기 때문.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돈이나 선물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이 법이 등장하자, 발걸음 당장 고가 선물세터 판매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들은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설 선물 사전 예약판매를 5만~10만원대의 실속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백화점들은 VIP 고객들을 중심으로 한 고가 선물세트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20만~30만원대 중저가 상품 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중저가 상품 물량을 지난해 설보다 두 배 늘리고 50만원 이상 고가 상품의 비중은 상당 부분 줄일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은 20만~30만원대 상품을 20%가량 늘리고 고가 상품은 다소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영향으로 100만 원이 소비 상한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다”이라면서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도 여의치 않아 올해는 실속형 선물세트 구매 비중이 압도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명품업계도 설날 명품 가방 판매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명품업계 한 관계자는 “어머니 선물용으로 인기 있는 여성용 가방은 200만~300만원대여서 올해는 가방보다는 저렴한 100만원 이하의 지갑이나 스카

국회통과 앞둔 '김영란법' 영향권

50만원 이상↓ 20만~30만원대↑

명품도 100만원 이하 지갑 주종

중저가 선호에 편의점업계 반색



위부터 호텔신라 '설화한우 스페셜 세트', CU '차별화 세트',

프 등이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텔업계는 다양한 초고가 선물세트 판매에 돌입했지만, 그리 기대는 안하는 눈치다. 호텔업계 최고가 설 선물은 롯데호텔서울이 내놓은 프랑스 와인 샤토 무통 로칠드 1945년산으로 1병 한정으로 5900만원에 달한다.

이 상품은 2013년부터 추석과 설 명절 선물 세트
로 계속 나왔지만 팔리지 못했다. 올해 역시 가격이
지난해보다 100만원 올라 주인을 찾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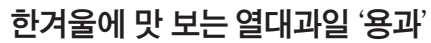
반면, 저렴한 설 선물세트의 인기가 이어지자 편의점은 호재를 기대하고 있다.

CU는 1인 가구 등 소가족을 위한 '소포장 제수용 세트'와 인기 카테고리 내 1등 상품으로 구성된 'CU 차별화 세트' 등 실속 상품을 선보였다. 또 나만의 선물 세트를 구성할 수 있는 'CU DIY 세트'와 '미술냉치즈등갈비' 같은 맛집 제휴상품까지 선물세트의 구색을 다양화했다.

이 밖에도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해외 직구족을 위해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을 명품 브랜드뿐 아니라 '생활 속 상품'까지 두배 이상 확대했다.

세븐일레븐은 유기농·천연 조미료로 구성된 '미니 조미료 18종 세트'와 견과·씨앗으로 구성된 자연간식 선물세트 등 4만~5만원대 상품을 대거 준비했다. 이 밖에 싱겁족 힐링상품으로 인기가 높아진 향초나 반려동물용을 위한 애완용품 선물세트 등 차별화된 상품도 선보였다.

이선애 기자 isa@



열대과일 용과를 한겨울에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이마트는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베트남 직송 용과를 선보인다. 특대과(500g 내외, 4개)와 대과(420g 내외, 5개)로 구성돼 있으며 가격은 시중가 대비 30%가량 저렴한 9800원이다. 모델들이 이마트 매장에서 용과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허니버터’ 열풍 잇는 해태제과 ‘허니통통’



출시 1주일새 5만4000박스 완판... 사전예약제로 판매하는 매장까지

“하니통통이요? 하니버터칩 인기 못지 않아요.” 서울 속대입구역 근처의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러하(24)씨는 “7월에 처음 입고했는데, 매장에 진열하자마자 바로 다 팔렸다”면서 “하니통통이 하니버터칩 수준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해태제과에 따르면 하니통통이 출시 1주일(1월 5~11일) 만에 초도 물량 5만4000박스가 완판되면서 제2의 하니버터칩 열풍을 이어갈 조짐이다.

하니통통은 '자가비 하니마일드'와 함께 하니버터칩 품귀 현상을 해소하고, 경쟁사의 이른바 '미투(me too)' 제품에 대응하기 위해 해태제과가 지난 5일 출시한 감자스낵이다. 하니버터칩의 맛과 향을 더욱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시 1주일 동안 하니통통의 매출은 무려 13억원. 히트 제품 기준인 월 매출 10억원을 불과 1주일 만에 가볍게 넘어선 수치다. 출시 10일 만에 1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경쟁사 하니버터칩 미투 제품과 비교해도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은 판매 실적이다.

판매 현장 분위기도 허니버터칩 열풍과 흡사하다. 지난 5일부터 유통점에 입점되기 시작했으나, 매대에

이선애 기자 isa@

“한국에 첫 우승 안길 바텐더 찾아라”

디아지오, '월드클래스' 대표 선발대회

세계 최대 규모,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글로벌 바텐더 경연 대회인 '월드클래스 2015(World Class 2015)'의 대한민국 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국내 대회가 개막한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매년 전 세계 50여개국, 1만여명의 프로 바텐더들이 세계 최고의 바텐더 타이틀을 두고 겨루는 월드클래스의 2015년 국내 대회를 개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월드클래스는 바텐더의 지식, 기술, 창의력, 서비스 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제대회로 바텐더 계의 월드컵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1회부터 지난해까지 6회 모두 국내 대회를 거쳐 대한민국 대표를 선발했으며, 지난 2010년 2회 대회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인 염도환 바텐더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폼격 있는 음주문화(fine drinking)’를 기치로 개최되는 올해 대회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온라인 필기시험 외에 클래식 칵테일 제작과정



‘월드클래스 2015’ 대회 포스터.

을 보여주는 동영상 심사 항목이 새롭게 포함된다. 예선 심사를 거쳐 1차 선발된 40명 가운데 최종 결승선 진출자 10인을 뽑는 준결승전은 오는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최고의 바텐더 1인을 선발하는 국내 대회 결승전은 오는 6월 말 치러질 예정이다.

윤철규 기자 yoonck@

윤철규 기자 yoonck@



유통기한 확인하여 식품선택 올바르게

1순위 더 늘기전에 ‘마곡·동탄2’ 노려라

3월부터 청약조건 완화로 1160만명이 1순위…경쟁과열
‘마곡13 힐스테이트’ ‘동탄2 호반베르디움’ 분양 이목집중

오는 3월부터 청약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위례나 마곡 등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청약 순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1, 2순위까지 뒀으나 모두 1순위로 단일화된 다. 수도권 거주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면서 12회 이상 납부하면 1 순위가 된다. 지방은 기존대로 6개월 이상 이면 1순위 자격을 갖게 돼 1순위 가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실수요자의 경우 청약 조건이 완화되기 전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총 1744만5106명으로 청약제도 개편 방향이 공개된 9·1부동산 대책 이후 석 달간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54만706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743만7624명이다. 이번에 조건이 완화되면 1순위는 1160만명 수준까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 가능한 평수가 정해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치금액보다 작은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도 폐지돼 유주택 청약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장석 ERA 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청약제도가 개편되면 ‘장롱 속 청약통장’이 대거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인기가 높은 신도시나 강남권 재건축 등 수요자가 몰리는 아파트는 청약경쟁이 더

욱 치열할 것이므로 서둘러 청약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도 아파트 구입에 관심을 갖자 건설사들도 전통적 분양 비수기업에도 분양을 1·2월로 앞당기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전용 59·84㎡, 총 1194가구의 ‘마곡13 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를 분양한다.

올해 서울에서 첫 분양하는 빅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 마곡지구에서 유일하게 분양하는 민간 분양아파트로 희소성이 높아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점쳐진다.

마곡지구는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해 롯데·에스오일·코오롱·이랜드 등 기업 입주의 개발조체가 풍부하다.

또한 지하철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계획)가 관통해 배후수요가 많아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순환로와 인접해 교통여건 또한 뛰어나다. 신세계 북수요자가 몰리는 아파트는 청약경쟁이 더

정이다.

김철 현대엔지니어링 분양소장은 “오는 3월이면 청약통장 1순위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순위자들이 당점 확률이 높은 3월 이전에 미리 통장을 사용하려고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새해 첫 분양 물량이고 서울에서 마지막 공공택지라는 점, 마곡지구에서 유일한 민간 아파트라는 것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호반건설은 1·2월에만 3개 지역에서 4000여 가구를 분양한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동탄2신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와 다시 한번 부동산 훈풍이 불고 있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전용 63·84㎡, 총 1153가구의 ‘송도 호반베르디움2차’를 분양한다.

2월에는 수원시 호매실지구에 ‘수원 호매실 호반베르디움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84㎡ 단일 주택형으로 총 1100가구로 구성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부동산3법 효과, 주택경기 기대감 커졌다

HBSI, 석달만에 17.6P 상승
서울은 전월보다 25.5P 올라
분양실적지수↑ 미분양지수↓
분양시장도 상승세로 돌아서

지난해 9·1대책 이후 반짝했던 국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력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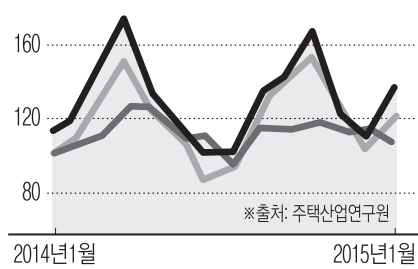
14일 주택산업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경기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주택산업환경지수(HBSI)가 지난달보다 17.6포인트 상승한 122.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급가격, 분양시절, 분양계획, 재개발, 재건축, 공공택지 지수 모두 지난달 대비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에 들어선 모양새다. 특히 비수기업에도 지난해 말 통과된 부동산3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탄력 적용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월세안으로 다수의 임차인들이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은 지난달 대비 25.5포인트 상승한 134.5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19.2포인트 증

주택사업 환경지수 전망치

■ 서울 ■ 수도권 ■ 지방



가한 121.8을 기록하며 서울 지역을 뒤따랐다. 지방은 전월보다 8.0포인트 하락하며 107.0에 그쳤다. 세종(8.7포인트 상승)과 부산(0.6포인트 상승)을 제외한 지방 시장 모두 하락했다.

2015년 분양계획지수와 분양실적지수는 각각 6.8포인트, 1.7포인트 상승한 105.6, 108.9에 다다랐다. 미분양 지수 역시 지난달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61.0으로 분양시장 역시 상승세로 전환됐음을 보였다.

주택건설 수주 시장 역시 상승세를 탔다. 재개발, 재건축, 공공택지 등 주택건설 수주 항목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공공택지지수는 전월 대비 6.9포인트 상승한 116.4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정경진 기자 jungkj@

지지옥선, 신년 경매특강
31일 삼성동 백암아트홀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선이 오는 31일 서울 삼성동 백암아트홀 대강당에서 (오후 1시30분~5시30분) ‘경매는 저금리 시대의 승부수’ 주제로 2015년 신년 경매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2015년 경매시장 전망과 함께, 저금리 시대 주거형 경매 및 수익형 경매에 대한 전략과 노하우를 공개하며 알차 일할 물론도 소개한다.

특히 이번 신년 특강에는 실력과 인지도를 겸비한 국내 최고 수준의 경매 전문가가 대거 강사로 참여한다. 우선 ‘강은 팀장의 경매 100일 프로젝트’ 저자이자, 지지자 산운용 투자운용본부 소속 강은 팀장이 ‘2015 경매 성공 투자의 맥을 잡다’ 주제로 지난 2015년 경매시장 전망을 짚어준다.

또한 두 번째 시간에는 ‘경매공부의 바다에 빠져라’ 저자이자 지지사이버스쿨 인기 강사인 김재범 강사가 ‘주거형 경매-2% 금리시대 20% 수익률로 맞서다’ 주제로 저금리 시대 주거 경매에 대한 유의점과 전략 등을 공개한다.

마지막 시간에는 ‘월세의 여왕’ 빌딩무자들 저자인 성선화 이데일리 재테크팀장이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별 경매 특징과 공략법을 공개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경기 찍고 부산·서울…‘SK뷰’을 4635가구 공급



SK건설 올해 분양 예정단지

분양시기	위치	구분	총가구수	일반분양	전용면적(㎡)
3월	경기도 화성시 가산동 57번지 일원	일반	1196	1196	59.84
6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612번지	재건축	240	50	59.84, 93.112
9월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346번지 일원	재개발	1054	717	59.74, 84.99, 111
10월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 1동 906번지 일원	재개발	1245	861	59.73, 84
10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28-12번지 일대	재개발	900	358	59.84, 95, 100
		계	4635	3182	

경기 화성 시작…5개 프로젝트
대치 국제아파트 재건축 등 알차

SK건설은 올해 서울·부산·경기 화성 등 3개 지역 5개 프로젝트로, SK VIEW(뷰) 아파트 총 4635가구를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일반분양분은 3182가구다.

SK건설은 오는 3월 경기 화성시 가산동에서 분양을 시작한다. 전체 1196가구로 모두 일반분양하며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은 전용면적 59㎡와 84㎡ 주택형으로만 상품을 구성해 있다.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인접해 있고 병원·마트·편의시설 등 동

탄1기 신도시의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오는 6월 분양 예정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대치국제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뛰어난 입지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하철 3호선 대치·도곡역과 분당선 한티역 등 트리를 역세권 단지에도 인근의 남부순환로 등을 교통여건이 우수하다. 특히 휘문중·고·단대부중고 등 명문학교군과 인근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어 최고의 교육 프리미엄을 자랑한다.

9월에는 전통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부산에서 분양에 나선다. 남구 대연동의 대연7구역은 부산의 전통적 주거 중심지

로 교육·생활·교통 등 주거여건이 뛰어나다. 주변에 대연초·중·고를 비롯해 부경대·경성대 등 학교가 밀집해 있고 지하철 2호선 대연역과 도시고속도로 등이 가까워 교통도 매우 편리하다.

이 외에 SK건설은 10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과 부산 수영구 망미동 재개발사업의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SK건설 관계자는 “올해 예정인 프로젝트는 모두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성공적 분양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며 “SK건설의 우수한 시공능력으로 각 지역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해외진출 리스크, 미리 살펴보세요” 중소·중견건설사 맞춤형 지원시스템

국토부, 역량평가·시장분석 제공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기업 역량과 시장분석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 곧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웹스·FIRMS)을 개발 중이며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웹스는 8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건의 심층 설문조사와 8000여건의 준공 사례 정보 및 위험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의 예상 질문과 답변, 입찰 사진과 입찰서 부록 등 각종 계약서, 각종 위험 발생 시 가이드라인 등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웹스는 총 5가지 모듈로 구성될 예정이며 2016년까지 2년에 걸쳐 개발할 계획이

다.

이 중 1차년도에 개발 예정인 3개 모듈은 △자가 역량 진단 및 해외진출 방향 수립 모듈 △기업역량 확보 모듈 △하도급 리스크 분석 모듈로 오는 4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 후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2차년도에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이 원도급자로서 해외 공사에 참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원도급 리스크 분석 모듈과 해외건설 실패 사례 등을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모듈을 개발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원시스템 개발로 전문인력 부족 및 리스크 관리 역량 미흡 등으로 해외 건설공사 수주와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건설기업들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mpark@

1시간 속성 해설 세일가스 혁명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저

세일가스는 무엇인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에너지의 대혁명! 세계 각국의 부흥을 이끄는 핵심 에너지! 세계 각국은 이 에너지와 중화 소재 기업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 에너지와 중화 소재 기업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다.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세일가스와 관련된 주요 110개 기업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체된 IT 산업, 반격에 나선 조선, 철강, 항공, 철도, 소재 산업...
일본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의 대부활!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지음
U&J(유엔제이) 번역
신국판 | 199쪽 | 20,000원

꿈의 에너지 세일가스혁명!!!

100년 만에 찾아온 초특급 에너지 혁명이 세상의 승자와 패자를 뒤바꾼다!

- 세계에너지 패권 경쟁과 기업의 흥망성쇠 전망
- 미국·일본 제조업 부활...세계에 미칠 영향 심도있는 분석
- 전기자동차·항공산업·조선산업 '대부흥'예측
- 중동의 발원권 약화...천연가스 대국 러시아 위상 흔들 '다원적 에너지 패권시대' 도래

‘제3의 에너지’ 세일가스 전쟁시작...싸울준비 됐습니까 (조선일보 2013년 5월 23일)
OPEC ‘美 세일가스 대응’ 사본오열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29일)
유럽까지 세일가스 혁명... 에너지 독립 부른 꿈 (동아일보 2013년 7월 25일)
“세일가스 인프라에 투자할 때” (한국경제 2013년 7월 31일)
“세일가스 혁명 대처 못하면 도태” (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
세일가스 시추장비 대대적 국산화 나선다 (헤럴드경제 2013년 9월 9일)
가장 비싼가스 쓰는 한국, 세일가스로 에너지비용 줄여라 (매일경제 2013년 9월 11일)

이즈미야 와타루(泉谷 渉) 이력

- 일본 경제신문 산교타임즈 대표이사겸 사장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출신
- 주요(中央)대학 법학부 정치학과 졸업
- 1977년 산업타임즈사 입사
- 1991년에 반도체 산업 신문 발간, 편집장 취임
- 현재 일본반도체협회 부회장(회장대행)
- 일본 반도체 벤처협회 이사
- 제주시·부산시 명예시민(기업유치공로)

도서출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문의 02-799-6727 팩스 02-799-2666 e-mail:youngsh@etoday.co.kr

국고 1800억+민간투자...미래해양 성장동력 ‘마리나’ 육성

마리나 항만 조성 팔 걷은 해수부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인 마리나법(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 발의 2년2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해 정부가 본격적인 마리나 산업 육성에 나섰다. 마리나 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해양수산부가 꼽는 정책이다. 마리나는 요트, 모터보트 등 레저용 선박의 수상 혹은 육상 보관 시설뿐 아니라 주차장, 호텔, 쇼핑센터, 위락시설과 녹지공간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2017년까지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해 해양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동안 마리나 산업 관련 업계는 마리나법 국회 통과 지연과 마리나항만 민간투자 부진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 이번 마리나법 통과를 올해 해수부가 본격적으로 마리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줘 고사 위기에 처한 관련 업계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해수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먼저 거점형 마리나 대상지역 6곳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사업자가 입지 선정부터 자유롭게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미 지정한 대상지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올해 5월까지 연장해 재공모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거점성과 정부의 예산지원을 고려해 거점 마리나항만 필요조건으로 국가 재정지원 타당성, 해양레저 수요 확보 용이성 등을 설정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공모 결과에 따라 총 6곳을 우선 지정하되 예비 대상지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6곳 거점마리나의 국고 지원 규모는 1206억원으로 1곳당 평균 201억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총사업비 18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 지정도 가능하다. 정부가 지정한 거점마리나 6곳은 인천 덕적도, 군산 고군산, 여수 엑스포, 창원 명동, 울주 진하, 울진 후포다. 또 해수부는 마리나 산

2년2개월여 만에 마리나법 국회 통과

거점 항만 조성 6곳 사업자 자율 선택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난개발 방지도

공유수면 점유·사용료 감면 100%로

상반기중 싱가포르사와 '부산 북항' 협약

레저선박 제조업체도 적극 지원키로

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그동안 마리나 업계가 주장한 '공유수면 점유료·사용료' 감면을 받아들여 점사용료 감면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산 북항 마리나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싱가포르의 SUTL 글로벌사와 항만시설 사용료와 수역시설 사용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3년간 협상에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 감면으로 물꼬를 트게 됐다. 해수부는 올 상반기 중에 싱가포르 SUTL사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북항 마리나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북항 마리나 사업은 SUTL사가 총 65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18년까지 200척 규모의 계류시설과 부대시설을 갖

춰 35년간 운영하게 된다. 현재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경제적 효과는 약 2조2000억원이며 2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해수부는 마리나항만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참여기관 수도 기존 2개에서 1개로 완화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마리나 산업시설 조성 절차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마리나항만 개발뿐만 아니라 레저선박 제조 산업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레저선박은 1만1359척으로 59개의 제조업체가 있지만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국산 레저선박 구매 수요를 확대하고자 관련 지방세 중과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추진할 계획이다. 마리나 업계가 주장한 5억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해수부는 그동안 마리나법 통과 지연으로 불법으로 운영해오던 요트 대여업을 이번 법안 통과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요트 소유자는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고 요트 이용자는 싸게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요트의 대여·계류업, 요트와 선석에 대한 회원권제도 도입해 서비스 창업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요트협회 관계자는 “요트 수입선박 등록 때 선령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폐기 직전 요트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가 일본 요트 폐기처리장으로 변하고 있는데 국내 요트 제조업체의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리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보다는 안전에 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동민 기자 lawsdm@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균형성장,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 (마리나항만법 시행령 개정, 2015년 상반기)

- 선박 대여·보관·계류업 신설
- 선박·선석 분양 또는 회원권제 도입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 발전기반 조성

민간투자 촉진

- ①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비율 확대
- ②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2015년 상반기)
- ③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참여기관 수 완화
- ④ 거점형 마리나 사업시행자 대상지 선택 자율권 부여(2015년 상반기, 민자)

레저선박 관련산업 육성

국산 레저선박 구매시 지방세 중과기준 상향 추진

수출에 필요한 제조기업 식별코드를 레저선박에도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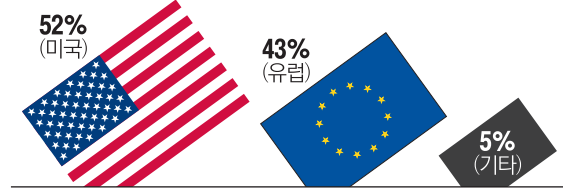
메가요트 기술개발 착수, 중소 레저선박 제조업체 해외보트쇼 참가 지원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대상지 위치도



마리나항만 45개소

전 세계 레저보트 활동 인프라 분포 현황



각국의 마리나산업 동향

	척당 인구수 (명/척)		마리나항 또는 요트항(개)		정박 및 계류시설 (개소)	
	2006년	2012년	2006년	2012년	2006년	2012년
호주	31	27	2200	450	42800	74800
프랑스	85	127	376	370	22400	166000
독일	210	165	2647	2700	N.A	N.A
이탈리아	68	98	105	429	128042	156606
일본	392	499	570	470	69000	54000
네덜란드	64	30	1200	1135	18800	188
노르웨이	6	6	300	30	N.A	-
스웨덴	8	11	1000	1500	200000	100000
영국	124	114	500	565	225000	78000
미국	17	19	1200	1100	1145000	80000

50조 세계 레저보트 시장 美·유럽 양분

年 3% 성장...매년 100만척 건조 중동·남미·중국 등 앞다퉈 진출



전 세계적으로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마리나 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도 마리나산업 육성은 해양강국으로 갈 수 있는 토대로 인식되고 있다.

세계 마리나 시장은 금융위기, 마리나 건설에 따른 환경 규제,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레저보트 공급시장이 위축됐다가 2012년부터 점차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마리나 이용 수요는 매년 약 3% 증가 추세에 있다. 또 미국 1600만척, 유럽 500만척, 기타 지역 200만척 등 전 세계에 약 2300만척의 레저보트가 보급돼 있고 매년 100만척의 신규 레저보트가 건조되고 있다. 연간 레저보트 1척에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약 831만원 수준이며 마리나 시설 조성에 따른 고용 창출 능력은 선석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레저보트 25개 선석(Berth)마

다 1명의 직접고용 효과와 4개 선석(Berth)마다 지역 내 간접 고용 효과를 발생해 경제적 효과가 크다.

특히 마리나시설 운영과 레저보트 활동에 소요되는 지출로 말미암아 창출된 이익의 3분의 2는 마리나 외부로 확산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실제 82만5000척의 등록보트를 보유하고 있는 호주는 344개의 마리나에서 약 1조2000억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직접고용 3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그리스는 지난 2001년 개장한 400척 규모의 코스 마리나(Kos Marina)에서 120명의 직접고용과 방문객 1인당 60~200유로의 지역 소비를 유도해 약 300만유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지난 2006년 개장한 76선석 규모의 뉴질랜드 타라나키 마리나도 70명 신규 고용 창출과 약 760만달러 소비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레저보트 시장 규모는 연간 5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시장을 유럽과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양분하고 있다. 전 세계 레저보트 활동을 위한 인프라 시설도 미국과 유럽이 전체 인프라 시설 중 각각 52%, 43%를 차지하고 있고 5%만이 기타 지역에 조성돼 있다.

최근 중동, 남미, 중국이 마리나 시장에 뛰어들면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에 던져주는 의미가 크다. 이처럼 마리나 산업은 해양산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양산업관광연구실장은 “마리나 산업 육성에 따른 효과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거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마리나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한 연안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과 불필요한 매립, 해양환경 오염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내 나이 72살, 늣둥이가 생겼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것 같지만 이제라도 한 아이를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우리 할멈과 오래오래 살면서 탄자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 늣둥이, 잘 키워보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이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당신도 나눔을 시작해보세요

1:1결연 후원신청전화 **1599-0300**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좋은 나눔 - 해외아동 1:1결연

도움이 필요한 해외 아동 1명과 1:1로 결연을 맺고 건강, 교육, 위생에 이르기까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버거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투데이는 굿네이버스를 후원합니다

美 성장세에도 소비 주춤… 연준 긴축 늦추나

지난해 12월 소매판매 0.9% 줄어 1년여 만에 최악
고용시장 회복에도 임금엔 정체… 유통업 부진으로
연준 베이지북 “완만한 성장 지속… 유가 급락 부담”

‘나홀로’ 성장을 지속하던 미국 경제에 대한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제의 버팀목인 소비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유가 약세 여파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매판매가 전월에 비해 0.9% 감소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1년여 만에 최악의 성적이다. 블룸버그를 통해 전문가들은 0.1% 감소를 점쳤다.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역시 애초 0.7%에서 0.4%로 하향 조정됐고, 10월 수치는 0.3%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유가가 급락하면서 휘발유 판매가 6.5% 줄어든 것이 지난달 전체 판매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휘발유 판매 감소폭은 2008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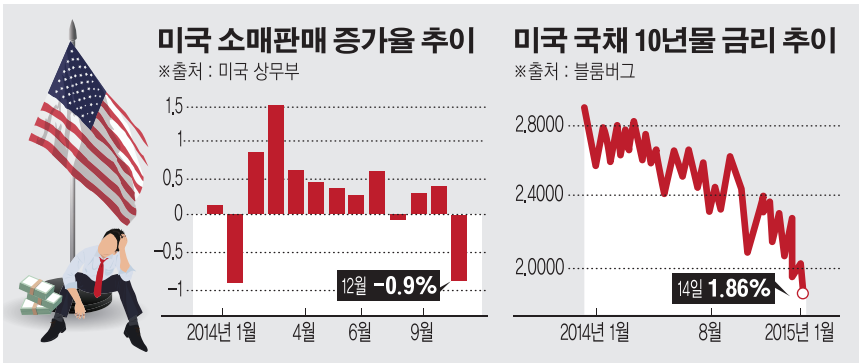
자동차 판매는 0.7% 줄었다. 자동차와 휘발유 그리고 건설자재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판매는 0.4% 감소했다. 월가는 지난달 근원 소매판매가 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유가 하락이 감세 효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늘릴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다. 지난 12월 기준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10달러를 기록하면서 2009년 5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온라인은 물론 백화점 등 전통적인 유통업계의 판매가 부진했다. 레스토랑과 바 등 요식업 정도만 판매 실적이 개선됐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전체 소매판매는 4% 증가했다. 이는 5년 만에 최저 증가폭이다. 휘발유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지난해 4.8% 늘었고, 근원 소매판매는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미국소매협회(NRF)가 발표한 지난해 홀리데이 쇼핑 시즌 매출도 전년에 비해 4%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이는 2011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지만, 앞서 10월에 예상한 4.1%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회복에도 임금이 늘지 않는 것이 소비심리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조슈아 사피로 마리아피오리나리미레즈 수석 미국 이



코노미스트는 “근원 소매판매의 부진은 임금 정체에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난해 강력한 고용 성장에도 임금은 필요한 만큼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소비 부진으로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게나디 골드버그 TD증권 미국 투자전략가는 “12월 소비지출 데이터는 4분기에 성장 모멘텀이 주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소비지출은 한동안 부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가는 미국의 지난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 분기에는 5.0%의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역시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유가 급락과 일부 지역의 경제에 대해서는 신중

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연준은 이날 공개한 경기평가보고서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가 ‘점진적이고 완만한(modest to moderate)’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베이지북은 소비지출이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12개 지역의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확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고용이 늘고 있고, 신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며, 성장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근 유가 급락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유가 약세가 소비에 도움이 되겠지만, 에너지 기업에는 부담이라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델라시언은 텍사스 지

역 에너지업체의 고용이 얼어붙었으며 수요가 15~40% 정도 줄었다고 전했다.

캔자스시티 지역은 성장이 둔화했다. 캔자스시티연은은 원유 채굴과 자본지출 전망이 하향됐고, 일부 기업은 신용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뉴욕 지역의 지난 연말 홀리데이 쇼핑 시즌 지출은 부진했다. 이는 12월 소매판매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소비가 불안하다면서 연준이 금리인상 시기를 늦출 가능성에 주목했다. 마크 찬들러 브라운브라더스해리먼 투자전략 헤드는 “이날 소비지표는 매우 놀랍다”며 “지표 부진과 상품 가격의 급락 영향으로 시장에는 연준이 올해 중순 금리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오는 28일부터 이를 일정으로 올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개최할 예정이다.

경제 성장에 대한 불안으로 이날 시장은 요동쳤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장중 300포인트 넘게 빠지는 등 뉴욕증시 주요 3대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자금이 몰리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1.86%로 하락했다. 장기물인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47%로 내리며, 사상 최저치인 2.44%에 다가갔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홍콩 입법회에 켜진 노란 우산



14일(현지시간) 홍콩의 의회적인 입법회에 참석한 령준잉 홍콩 행정장관의 연례정례발표 도중 민주파 의원들이 홍콩 센트럴 점령의 상징인 ‘노란 우산’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이날 민주파 의원들은 ‘진정된 보통선거를 원한다’ ‘령준잉은 물러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글로벌 산업트렌드

“콘텐츠 강화” 아마존, 우디 알렌과 맞손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 심화
TV 시리즈 제작 영역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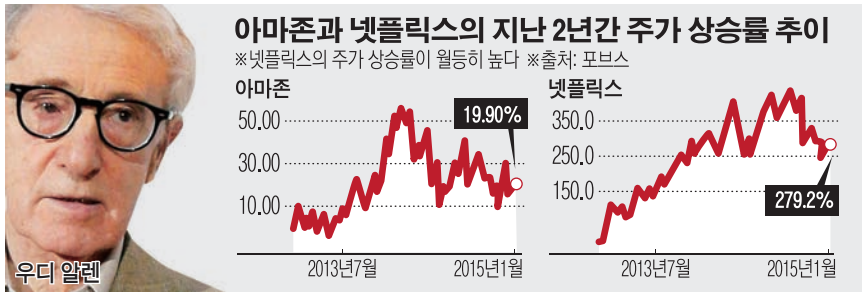
전자 상거래 공룡을 넘어 정보기술(IT)계 공룡이 되고 있는 아마존이 우디 알렌 감독과 손잡았다.

아마존은 13일(현지시간) 우디 알렌 감독과 스트리밍으로 서비스될 TV 시리즈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알렌 감독은 각본을 쓰고 연출도 맡게 되는데, TV물을 제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마존은 넷플릭스나 훌루 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 그리고 HBO 등이 시장까지 발을 넓히고 있는 기존의 TV 방송국들과의 불꽃튀는 경쟁에 나서고 있고 알렌 감독의 영입은 콘텐츠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보면 된다.

아마존에서 자체 제작되는 TV 프로그램은 아마존의 ‘프라이 인스턴트 비디오 서비스(Prime Instant Video Service)’를 통해 미국과 영국, 독일에서 서비스된다.

알렌 감독이 제작할 시리즈물의 제목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진 것은 내년에 서비



스될 것이며 30분짜리 풀 시즌으로 간다는 것뿐, 아마존은 그동안 제작 계약을 할 때 단발로 해 왔다. 시청자들의 반응을 본 뒤에 시리즈로 갈지 여부를 정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알렌 감독과는 ‘믿고 가는’ 결로 계약을 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시리즈 제작을 해 온 편. 최근에도 ‘마르코 폴로’ 시즌2와 다른 코미디물에 대한 제작 계획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 전략이 기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5년 전 자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만들었지만 잘 알려진 연출자나 배우, 작가와 손잡으려고 하진 않았던 입장을 바꿨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반응을 본 뒤에야 시리즈 제작을 했던 관행

도 바꾸고 있다는 것. 미디어 전문가인 조영진 박사도 같은 분석이다.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의 경쟁이 격해지다 보니 알렌 같은 거장을 영입하려는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이 대형 계약을 성사시킨 반면 NBC와 넷플릭스가 준비했던 프로젝트는 넘어졌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빌 코스비와 프로젝트를 취소한 것. 피보탈 리서치의 미디어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와이저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아마존은 (콘텐츠로 인해) 어떤 고객들을 이끄는 동시에 다른 고객들이 기본 상하지 않도록 하려는 측면에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윤경 기자 s914@

유가 급락에… 구리값도 6년만에 최저

국제유가의 급락과 함께 구리 가격 역시 14일(현지시간)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3개월물 구리 가격은 장중 9% 가까이 폭락하며 t당 5353.25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다. 뉴욕에서는 5.2% 하락한 파운즈당 2.51달러에 거래됐다.

지난해 6월부터 유가가 60% 급락한 데다 구리 등 주요 상품 가격이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블룸버그상품지수는 6개월 동안 30% 빠졌다. 이날 장중에는 100 아래로 하락하며, 2002년 8월 이후 최저치로 밀렸다.

중국의 성장 둔화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

라는 우려가 주요 상품 가격의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주요 투자기관 역시 상품 가격의 추가 하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지프 약화와 글로벌 수요 감소가 상품시장의 약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유가 하락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투자자들이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팔자주문을 던지고 있다면서, 구리 가격의 낙폭이 가파른 것은 거시적 전망이 불안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시장조사기관 CRU그룹은 올해 중국의 구리 수요 증가율이 4%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글로벌 리더

머스크 테슬라 CEO의 승부수 “中 판매감소 해법은 新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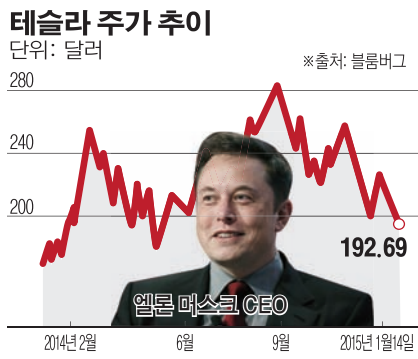
모델X·모델3 등 성공 관전

승승장구하던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판매 감소라는 암초에 걸렸다. 이에 머스크 CEO가 어떤 해법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머스크 CEO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 개막에 맞춰 열린 ‘오토 모터브 뉴스 월드 콘그레스’ 콘퍼런스에서 “지난해 4분기 중국 매출이 예기치 못하게 감소했다”며 “유가 하락과 충전소에 대한 우려가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에 14일 나스닥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일 대비 5.7% 급락한 192.69달러로 마감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가장 큰 일일 하락폭이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48% 올랐으나 올 들어서는 13% 하락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머스크 CEO는 “판매 감소는 일시적인 것으로 아직 중국은 우리 전체 판매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테슬라는 현재 중국 70개 도시에 700개의 충전소가 있다.

머스크 CEO가 이날 오는 2020년에 회사 이익을 낼 것이라고 말한 점도 시장에 실망을 안겼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는



“2020년에 판매가 50만대를 돌파해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년에는 연간 수백만대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머스크 CEO는 신모델 출시에 승부수를 걸었다는 평가다. 그는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모델X가 올 여름 출시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모델3’에 대해서는 “약 3만5000달러(약 3800만원) 가격으로 현재 주력 차종인 모델S의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콘퍼런스 연설 후 기자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한 테슬라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한다”며 “모델3 실적이 따라 CEO 자리에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구글 조립식 스마트폰 ‘아라’

하반기 푸에르토리코서 첫선

구글이 그간 공동여왔던 조립식 스마트폰 ‘아라’가 올해 첫 선을 보인다.

구글은 14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있는 본사에서 아라 개발자 회의를 열고 ‘아라’를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웨스트리저널(WSJ)에 보도했다.

아라는 마치 레고처럼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부품 모듈을 틀에 끼워서 만드는 스마트폰이다. 지난 2012년 비밀 계획으로 시작돼 2013년 10월 공식 발표했다.

아라의 가격은 어떤 모듈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형 가격은 50달러로 예상된다. 구글은 우선 본체와 30여 개의 조립식 부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조립식 부품 종류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구글이 푸에르토리코를 아라폰 첫 출시국으로 정한 이유는 높은 모바일 보급률에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푸에르토리코 국민 중 75%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푸에르토리코가 어느 나라보다 아라에 대한 피드백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구글 측의 설명이다.

김나은 기자 better88@

글로벌 리포트

佛 ‘샤를리 에브도’ 최신호 불티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프랑스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최신호가 불타 나게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오전 파리 몽파르나스 기차역 내 한 신문판매소의 점원 사이드 바카르는 “오전 6시에 배달된 샤를리 에브도 150부는 단 10분 만에 매진됐고 아직도 찾는 사람이 있어 한 400명이 잡지를 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테러로 편집장 등 직원을 잃은 샤를리 에브도의 ‘생존자 특별호’가 나온 이날 파리 시내 서점과 가판대는 주간지를 사려는 시민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또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매진시태가 벌어지며 앞서 계획한 발행 부수 300만 부에서 200만 부를 더 찍어 500만 부를 발행한다고 주간지 측은 밝혔다. 테러 사건 이전의 발행 부수는 6만 부였다.

ECJ “ECB 국제 매입은 합법”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제 매입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오는 22일 예정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ECB가 양적완화(QE)를 도입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페드로 크루스 비알론 ECJ 법무관은 14일(현지시간) ECJ가 지난 2012년 9월에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무제한 국제매입 프로그램(OMT)은 합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JPMorgan Chase의 스테파니 플랑드르는 “ECJ의 이 같은 판결은 ECB의 상황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며 “나아가 ECB가 독일과의 논쟁에서 이긴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日 예산안 국방비 역대 최고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14일(현지시간) 96조3400억 엔(약 870조원) 규모의 2015회계연도(2015년 4월1일~2016년 3월31일) 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4회계연도보다 4000억엔 가량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늘어나고 방위비가 3년 연속 증액됐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올해 예산에서 일본 정부는 복지와 방위 예산을 확대했다. 의료비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비 예산은 지난해보다 1조엔 늘어난 31조5000억 엔이다.

국방비 예산은 2% 늘어난 4조9800억 엔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특히 2014년도 추경예산안의 방위비(2110억 엔)를 합산할 경우 약 5조1900억 엔에 달하게 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예산안을 이번 달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경록의 인생 2막

인터스텔라에서 배우는 경제학

낮게는 1%대까지 진입한 정기에 금 금리는 저성장이 지속되면 1%대 금리로 고착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초저금리에서는 자산 축적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자산관리에 직격탄을 날린다. 영화 '인터스텔라'(Interstella)에서 중력이 큰 곳에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스텔라에서 가르강티아라는 블랙홀 주변에 있는 밀러 행성은 중력이 너무 커서 이 별의 1시간은 지구의 7년과 맞먹는다.

중력을 금리로 보고 시간의 흐름을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에 대응해 보자.

중력이 큰 곳에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듯 초저금리에서는 자산의 축적 속도가 늦어진다. 금리가 5%일 때 원금이 두 배 되려면 약 14년이 걸린다. 하지만 금리가 하락해 4%가 되면 18년, 3%일 때는 24년, 그리고 2% 금리에서는 무려 36년이 걸린다. 1% 금리에서는 70년 걸리고, 0.1% 금리면 693년이 걸린다. 원금이 두 배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금리가 5%에서 1%포인트씩 하락할 때마다 각각 4년, 6년, 12년, 34년 더 길어진다. 초저금리로 가면 자산축적 속도가 가속적으로 둔화됨을 볼 수 있다. 예금 금리가 0.1% 정도에 불과한 일본은 블랙홀에 빠진 거나 다름없다.

초저금리 중력에 끌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중력을 탈출할 필요가 있다.

인터스텔라 영화에는 블랙홀에 가까워지면서 연료를 집중적으로 사용해 블랙홀에 빠지지 않고 옆으로 탈출하는 장면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투자라는 연료를 통해 위험을 약간 감수하면서 수익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연료 추진으로 블랙홀에서 탈출해 중력이 약한 별에 머무른다는 의미다.

실제로 초저금리에서 약간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2-3%포인트 더 높일 때의 긍정적인 효과는 커진다. 위에서 든 예는 수익률을 1%포인트씩 낮출 때의 자산증가 속도였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1%포인트



트씩 높아질 때는 정반대의 효과가 일어난다. 2% 금리에서 수익을 3%포인트 더 올려서 5%로 하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을 36년에서 14년으로 무려 22년이나 단축할 수 있다.

반면에 금리가 4%일 때는 동일하게 3%포인트 수익을 더 올리더라도 원금이 두 배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8년에서 10년으로 8년 단축할 수 있을 따름이다. 초저금리라는 중력에 끌려들어가기 전에 연료를 더 사용해 이를 살짝 벗겨나 4-5% 금리의 중력을 가진 별로 가는 것이 좋은 전략임을 알 수 있다.

초저금리로 금리형 상품이라는 서식지는 자꾸 황폐화돼 가고 있다. 때문에 노후를 위해 자산을 축적하거나 혹은 축적된 자산에서 금융소득을 얻어 노후를 영위하기 어렵게 되었다. 저축에서 투자로 서식지를 옮겨야 할 때다. 다만 투자라는 서식지로 자산을 옮길 때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자산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분산과 자산배분, 이 두 가지를 지키자. 적립식으로 투자금을 분산하는 시간의 분산, 주식-채권 등으로 나눠 투자하는 자산군 간의 분산, 해외주식-배당주-가치주처럼 동일 자산군 내에서의 분산, 그리고 특정 국가에 집중하지 않는 지역별 분산이 필요하다.

초저금리 시대에 성공적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자산을 투자와 글로벌이라는 서식지로 옮기면서 더불어 3중, 4중의 분산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

배극남의 직격탄

문화경제국장 겸 문화부장



“최근 돌풍을 일으키는 영화에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 퍼지니가 경례를 하더라. 그렇게 해야 나라라는 소중한 공동체가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박근혜 대통령) “영화를 보는 내내 가정과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 세대의 헌신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김무성 의원) “영화를 놓고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논란을 벌이는 게 좀 씁쓸하다.”(문재인 의원)

요즘 한 영화를 놓고 논란과 논쟁이 격렬하다. 말도 참 많다. 바로 한국영화로는 11번째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윤제균 감독의 ‘국제시장’이다. 1950년 6·25전쟁부터 최근까지 격동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아버지의 가족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담은 ‘국제시장’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노인 관객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마디씩 하는 영화가 됐다. 영화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과 비평을 내고 있다. 이념과 세대에 따라 이 영화를 보는 시각차가 워낙 커 논란과 논쟁도 폭발하고 있다. “국제시장”을 물어뜯지 마라! “국제시장”을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국제시장”을 보면 아예 대놓고 ‘이 교생을 우리 후손이 아니고 우리가 해서 다행이다’라는 식이다. 정말 토가 나온다

‘국제시장’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許하라!

는 거다. 정신 승리하는 사회라는 게” “독재정권하 산업화 시대의 ‘공’만 강조하고 ‘파’는 외면하고 있다”...

영화에 대한 의견도 많지만 ‘국제시장’에 대해 표명한 비평이나 입장에 대한 비난과 조롱도 끝없이 이어진다. 전문가에서부터 일반관객까지 수많은 사람이 신문과 방송, 인터넷을 통해 특정인의 영화에 대한 평가나 비평에 대한 비난과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국제시장’을 정치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식의 지시적 해독 주장, 확립적 의미 부여 강요, 특정 이념이나 가치관에 입각한 영화비평에 대한 불온시 등 가장 비문화적 행태가 분출되고 있다. 진영 논리에 갇혀 자신의 견해에 맞지 않는 비평을 하면 문자마시 비난으로 일관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처럼 문제 있는 행태가 홍수를 이룬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보수와 진보의 경직된 사고와 학교의 잘못된 교육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사회를 지향하면서도 나와 다르면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비난을 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학교에서 시와 소설을 가르칠 때 ‘주제가 무엇이다’라고 확립적으로 가르치는 지시적 교육은 영화, 드라마 등 문화적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독과 의미를 봉쇄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국제시장’에 대한 획일적 해독 강요 등 비문화적 행태들이 버젓이 유행하는 것이다.

영화와 같은 문화 텍스트를 해독하거나 비평할 때 분명 다양한 시선이 존재한다. 다만 그 비평과 해독의 완성도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김용수 교수는 영화나 드라

마 등을 비평, 해독할 때에는 문학적 상상력과 지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문학적 상상력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객관성을 상실할 수 있고 엄격한 분석체계에만 매달린 해석은 예술적으로 무미건조할 수 있다. 상상력은 한 작품의 표면적 모습 뒤에 있는 본질적 의미를 통찰하게 하고 분석은 가설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게 해 구체적인 이해에 도달하게 만든다. 상상력과 분석 능력에 따라 비평과 해독의 완성도가 갈린다.

문화이론학자 스튜어트 홀(Stewart Hall)은 문화 텍스트를 해독하는 방식에는 텍스트를 그대로 수용하는 순응적 해독, 자신의 세계관과 경험에 근거해 수용하는 타협적 해독, 그리고 텍스트의 내용을 저항적으로 읽어내는 저항적(비판적) 해독 방식이 있다고 했다. 성별, 지역, 학력, 경험, 지식, 나이 등에 따라 똑같은 텍스트여도 다양한 해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만들 수 있다. 또한 페미니즘 비평에서부터 기호학적 비평에 이르기까지 비평 방법론에 따라 텍스트는 다른 의미를 드러낸다.

‘국제시장’을 두고 터져나오는 논란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다양한 해독 방식과 입장에 따라 비판적 혹은 긍정적 의미 만들기를 할 수 있는 데도 자신의 관점(진영논리)에 빠져 획일적 해독만을 강요하는 행태다. 그것은 문화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인다. “영화는 만든 사람의 의도와 보는 사람의 해석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다른 해석을 한다고 해서 만든 사람이 괴로워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국제시장’의 윤제균 감독 말이다. ‘국제시장’에 대한 소모적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새겨들을 만한 말이다.

knbae@

오늘의 배극남 SBS 주말극 ‘내마음 반짝반짝’으로 돌아온 장신영

배극남닷컴은 14일 SBS 새 주말드라마 ‘내마음 반짝반짝’으로 돌아온 배우 장신영을 만났다. 전작 ‘황금의 제국’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맡아 비밀스럽고 치명적인 매력을 과시한 그녀는 이번 작품에서 통닭집 첫째 딸 이수진 역으로 분해 연기 변신을 시도한다. 장신영은 이날 ‘내마음 반짝반짝’ 제작발표회에서 “‘황금의 제국’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맡았을 때는 딱딱한 느낌이 있었다. 이번 작품을 통해 풀어지는 역

할을 해보니 스스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연기를 할 수 있었다”며 “처음에 편한 느낌으로 연기했는데 점점 달라졌다. 극본을 통해 하나의 이미지를 전달하려 애썼다. 배수빈과 함께 연기를 해 조금 더 쉽고, 편안했다”고 말했다. ‘내마음 반짝반짝’은 대한민국 대표 서민 음식으로 상징되는 ‘저민’으로 얹히고설린 두 집안 가족들의 성공과 성장 스토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눈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장신영, 이태민, 남보라가 세 자매로 만나 함께 호흡한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에 장신영은 “이태민, 남보라가 현장에서 잘 따라준다”며 “최근 경산에서 촬영했는데 화장실에서 우는 신이 있었다. 남보라가 카메라에 나오지 않는 데도 같이 울어줬다. 말투와 행동이 나를 움직여줬다. 정말 고맙다. 이태민도 마찬가지다. 연기가 아닌 진심으로 임하고 있다. 우리 세 자매의 호흡에는 의심이 없다”고



말했다. 장신영은 또 “처음 극본을 받았을 때부터 순진이 캐릭터의 꾸밈없는 성품이 참 좋았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오는 21일 첫 방송되는 ‘내마음 반짝반짝’은 ‘머느리 전성시대’ ‘술악

온라인 와글와글 올해는 슬픈 ‘13월의 월급’...환급은커녕 토해낼 판

○...올해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연봉 50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정 직장인들은 환급은커녕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온라인 상에는 “법인세를 늘리면 되는데 왜 애꿎은 셀러리맨만 가지고 난리인지”, “그렇게 세금 끌어모아서 제대로 쓰면 억울하지나 않지. 죽어라 견어서 얹힌 데 스니가 열 받는 거다”, “제길. 연봉 많이 받으면 더 내는 건 당연하다 쳐. 근데 돈을 쥐고 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나? 슬프다. 우울하다”, “이게 국민들이 원하던 부자증세 아닌가? 많이 벌수록 많이 내라는데

틀린 말이야? 하지만 현실은 진짜 부자들인 이들은 매출 뺏쳐서 세금 덜 내고 월급 받아먹는 불쌍한 직장인만 정작하게 세금 징수당한다는 거” 등 비난이 쏟아졌다.

○...‘하니버터칩’ 자체품 ‘하니통통’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해태제과가 5일 출시한 하니통통은 출시 일주일 만인 11일 초도 물량 5만4000박스(13억원)가 완판됐다. 그러나 네티즌의 반응은 냉랭하다. 온라인상에는 “별맛도 없던데 여기자기서 난리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더 찾는 듯”, “하니버터칩이고 하니통통이고 해태제과 마케팅 짜네”, “하니버터칩 물량 늘릴 공장은



부족하다면서 하니통통 신제품 물량 늘릴 공장은 있나 보지? 애초에 해태제과도 알고 있었음. 대중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사 먹을 수 있는 과자가 되는 순간 꼬꼬면처럼 인기는 사그라진다는 걸”, “웬지 재수 없어서 먹기 싫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등 냉소적 반응이 많았다. 김은총 기자 kec@

오늘의 Hot Click 베스트5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 1 인천 어린이집, 폭행 의심 동영상 2개 추가 확인
- 2 새누리 ‘박원순전횡진상조사단’ 구성... 새정치 반응은?
- 3 동양 피해자, 이해경 부회장-이정재 배임죄로 고발한다
- 4 삼성전자, 8조 1000억원대에 블랙베리 인수 추진
- 5 클라라 ‘회장 발언에 성적 수치심’...계약 무효 소송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전문생산 전문업체

받는분께 강한 만족감을 드리는 꼭필요한 선물!!
G&SG에서 선물하세요~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골프용품선물세트

가족네임텍세트 순금네임텍세트 순금네임텍 출원기념품 스와로브스키보수기 오너봉 골프장갑

골프티모음 물토시 VIP 골프기념품 순금볼마커 로고볼마커 보석볼마커

*광고에 게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데스크 칼럼

포퓰리즘이 곳곳에서 철철 넘쳐 흐르는 문제의 법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제정안)은 기사화생 이란 단어가 꽤 잘 어울리는 법안이다. 원래 이 법안은 법안 제출 이후 거의 1년 반 동안 뇌사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혹하고 의식을 회복하더니 국회 정부위를 통과했다. 물론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으니 다음 달 어느 날 우리 앞에 법으로 모습을 드러내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밝아도 밝아도 죽지 않는 무슨 외계 괴물을 보는 듯하다.

김영란법의 기사화생을 두고 외계 괴물의 생환 운운한 데 목에서 독자들은 이미 눈치챌까만 필자는 단언컨대 이 법안에 부정적이다. 바로 법안 곳곳에 스며 있는 독소 조항들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1년간 합쳐서 300만원을 초과한 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수수금품의 5배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금품가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없는 행위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가령 밥 한 끼 먹거나 작은 선물 받는 것도 안된다는 얘기다. 그것이 극히 선의에서 출발했다 해도 말이다. 그놈의 '직무 관련성 무관 처벌' 조항 때문에 사적 자유가 침해받는 것이다.

처벌 기준 액수도 과하다. 100만원이란 기준은 웬만한 건 다 안 된다는 얘기다.

직무 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라지면서 검찰이 제멋대로 수사권을 남용할 우려도 있다. 안 좋은 의도로 정치인이나 관료에 대해 표적 수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하늘만큼 땅

‘합리적 김영란法’이 정답이다



이 은 호
경제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만큼 넓어진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부모와 부인, 아들, 딸 등 민법상 '가족'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당 공직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이런 두말할 것도 없이 명백한 연좌제다. 연좌제는 우리나라가 과거 좌파 범죄자에 대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가 거센 반발이 일자 폐지한 제도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경멸해 마지않는 북한이 체제 존속을 위해 전 세계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꾀없이 유지하는 제도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연좌제를 받아들인다니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과 나란히 제소나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아울러 법안이 언론사 종사자와 사립학교·유치원 종사자까지 모두 적용 대상에 범주에 포함한 것은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다. 이런 식이면 동네 슈퍼 아저씨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법안은 기업의 합법적인 대외 활동을 제한할 소

지도 있다. 기본적인 선물이나 식사대접도 못 하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 법안을 제안한 분들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사실 공직비리에 관한 뉴스가 '탁' '탁' 터져 나올 때마다 율화 통 터지는 건 필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돼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졸졸이 쇠고랑 차고 차가운 감방에 가는 것 보며 화끈한 희열을 느끼고 싶다. 하지만 우리의 희열을 위해 헌법이나 인권 같은 거 짐짓 모른 채하고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처벌한다? 이런 안 된다. 우리 헌법은 정치인이거나 공무원들의 인권도 오롯이 지켜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헌법의 취지도 살리고 국민의 법 감정도 살리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있다. 그것은 바로 법안에서 지극히 위험적인 요소들을 빼고 처리하는 거다.

우선 직무 관련성 입증 없이 처벌 가능케 한 것과 관련해서 해당 내용을 보다 세세하게 규정하면 된다. 지나치게 엄격한 처벌 기준도 300만원 정도로 완화하면 될 것이다. 명백히 연좌제인 가족 처벌은 제외해야 한다. 또 이번 기획에 로비스트 합법화 법안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다. 공식 로비스트가 만들어지고 기업이 이들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로비를 하면 불법적인 대외 활동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찌감치 이 제도를 도입해 올바른 기업 대외 활동 풍토를 만들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당부할 게 있다. 여야는 법안을 2월에 처리한다는 심산인데, 이렇게 우리 가독한 법안을 후다닥 합의해 처리하면 나중에 항상 여지가져서 반론이 쏟아지게 된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쯤 처리하는 게 좋겠다.

leeeeunho7@

오상민의 현장

문화부 차장 겸 스포츠팀장

나이 때문에 힘드신가요?



요란한 휴대전화 벨소리가 정적을 깼다. “장지혜 프로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름이다. 한때 여자골프 대표 상비군으로 활약했고, 김하늘(27·하이트진로)과 함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의 촉망받던 신예였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를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존재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지워졌다.

그래서 더 놀랍고 반갑다. 그는 2년 동안 중국에서 투어를 뛰었다고 했다. 지난 2012년 성적 부진으로 KLPGA 투어 시드를 잃고 2년간 중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며 재기를 노렸다. 그리고 지난해 말 KLPGA투어 시드 순위전을 17위로 통과하며 거점맞처럼 올 시즌 출전권을 따냈다.

하지만 그의 나이도 어느덧 서른으로 접어들었다. 국내 무대에서 뛰는 여자 선수 중 최고령에 속한다. 그래서 그에게 부끄러운 질문을 던졌다. “나이 때문에 힘들지 않겠냐” 하지만 그는 나이를 의식하지 않았다. “어린 선수들보다 체력은 밀릴 수 있어도 연습량은 밀리지 않는다.” 운동선수의 성격은 훈련량과 비례할 뿐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단다.

그의 직격탄이 가슴 속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말을 건넸다. 지난해 장지혜의 1년 후배 윤채영(28·한화)은 프로데뷔 9년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에는 장 프로 차례”라며 기분 좋은 상상을 선물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우승에 차례가 있나요?” 선배들이 어린 선수들에게 밀리는 건 체력적 한계보다 노력도 정신력도 부족한 때문이란단다.

여전했다. 짧은 전화 통화에서 감지한 그의 품성을 오랜 만에 확인할 수 있었다. 2년이 흘렀지만 그의 품성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

올 수 있었다.

맞는 말이다.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오래도록 기량을 유지하는 노장 선수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해 K리그 최우수선수 이동국(36·전북), 통산 9번째 프로야구 골든글러브를 거머쥔 이승엽(40·삼성), 프로야구 현역 최고령으로 여전히 건재함을 입증한 이병규(41·LG)는 철저한 자기관리로 십수년간 정상 자리를 지켰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초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어디 운동선수들만의 문제일까. 우리는 나이와 업무 실적의 미묘한 상관관계 속에서 끝없는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경쟁조차 해보지 않고 스스로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이도 적지 않다. 그들의 핑계는 늘 나이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 일본의 골프전문 카메라맨이던 사에구사 스즈무(78)씨는 선수들이 나이를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시기보다 초심을 잃는 시기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체력 저하 원인은 마음에 있다는 뜻이다.

장지혜는 탁월한 기량을 가진 선수가 아니다. 궂직만 실적도 없다. 하지만 초심이 살아 있다는 건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증거다. 끝난 줄만 알았던 그의 골프인생도 초심이 있어 다시 살아났다. 나이로 인해 도전자체를 회피하는 우리 사회 ‘젊은 환자’들을 비롯기라도 하듯 말이다.

golf5@

차인태 케이론파트너스 팀장

양보·배려 없는 지하철 문화

며칠 전 퇴근 길 지하철에서 목격한 일련의 사건은 나를 많은 생각에 빠지게 한다. 신도림역에서 겨우 지하철에 올라탄 한 중년의 아주머니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옆에 자리를 잡았다. 추운 날씨 탓인지 아주머니는 두터운 잠바를 걸치고 있었다.

역을 정차할 때마다 객실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열차도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건은 이때부터 시작했다. 내 옆에서 있던 아주머니는 중심을 잡는데 힘겨워 보였고, 아주머니 앞에 앉아 있던 한 학생 몸에 아주머니의 잠바자락이 부딪히기 시작했다. 학생은 불쾌한 듯 앞에 계신 아주머니를 몇 번 흘려보더니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자 급기야 아주머니를 뺀히 쳐다보며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건네는 말이 가관이다.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섞어가며 아주머니에게 항의 아닌 항의를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아주머니가 “미안하다” 말을 제차 건네도 학생은 분을 참지 못했고 급기야 아주머

니에게 손찌검을 하려는 듯 주먹을 꽉 쥐고 아주머니를 노려봤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상황이 정리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신 아주머니는 결국 사람들을 해치며 다른 객차로 자리를 옮기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양보와 배려가 실종된 이러한 불쾌한 상황들을 지하철 내에서 자주 목격할 것이다. 때로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무너진 시민의식과 양보와 배려가 없는 지하철 내 추태 동영상들이 무한대로 퍼져나가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칭해지며 사람들 사이에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것이 다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던 나라였다. 어른을 공경하고 타인에 대한 양보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중요시 여기는 민족성을 자닌 나라가 우리 나라였다.

예의범절을 중시하고 양보와 배려를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우리 나라의 경쟁력이 아닐까?

최재혁 산업부/freshphase@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투명경영은 대세다. 2000년 이후에도 공황에 비급가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투명성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경제학 원론을 두고 ‘팬큐’와 ‘피케티’의 논쟁이 있을지언정 미시의 세계에서 투명성을 부정하는 것은 상식 이하란 얘기다.

투명경영의 첫 번째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주주가 알아야 할 사안이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마후 논란이나 주사위 경영이란 비아냥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은 의사결정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의 외면을 받는다. ‘미래를 중 잡을 수 없는 기업’이란 평가를 받는 곳에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투명경영의 두 번째는 소통이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시장조사는 했는

지, 이사회와 논의는 거쳤는지, 파급은 고려했는지, 이러한 과정 없이 진흙땅에 솟대 세우는 듯한 행보가 이어진다면 그 진위는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올해 투명경영이 더욱 중시되는 것은 기업의 지배구조 재편이 발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과 정희선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정희선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연관이 있다. 삼성과 SK그룹 등도 지배구조 재편과 관련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명경영을 담보하지 못하면 대기업 계열 회사의 주가가 지배구조 문제로 급전 직화하는 일은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다. 그 피해는 주주와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져야 한다.

강물이 범람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물가의 소재라는 것을, 기업은 잊지 말아야 한다.

운명적인 시련을 가족의 사랑과 웃음의 힘으로 극복해낸 기적 실화!

세계 최강 사서

조쉬 해나가니 지음 | 유향란 옮김 | 392쪽 | 13,800원

세계 최강 사서

중증 투렛 증후군의 아픔을 책에 대한 열정과 가족의 도움으로 극복해나가는 한 행복한 사서의 감동 스토리

오프라 윈프리 추천도서

아버이라는 존재, 우정, 결혼, 그리고 이 책의 저자와 가족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기적을 슬프고도 애절하게 노래한 원대하고 감동적인 비가(悲歌). 한 번 잠으면 절대로 손에서 책을 내려놓을 수 없고, 결코 잊을 수 없으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벽하고도 완벽한 보석 같은 작품.

— 팜 알린(What to Read When의 저자)

이 책을 읽으라,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웃고 배우라. —《워싱턴 포스트》

두려움을 모르며 유쾌한 책. —《뉴욕거》

고집의 힘에 대한 감동적이며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 —《퍼플》

통찰과 유머, 은혜와 경이로 가득 찬 놀라운 이야기. — 엘리니 래 손(Sweet Hearts의 저자)

정말로 재미있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매혹적인 회고록. — 조 랜스데일(Edge of Dark Water의 저자)

재미있고 진지하며 감정을 풍요롭게 만드는, 경이로운 휴먼 스토리. — 루 솔러(New Rules of Lifting의 공동 저자)

조쉬 해나가니는 도서관이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오로지 이런 책들 덕분이다. 《세계 최강 사서》야말로 독서의 즐거움이다. — 크리스 길아보(The \$100 Startup의 저자)

이 회고록은 앞으로 오랫동안 당신의 가슴 깊이와 달을 현대의 고전으로 풍요롭고 지혜롭고 중요한 책이다. 조쉬는 그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용감한 사람이다. — 세스 고딘(Linchpin의 저자)

JOSH HANAGAN

info@moonye.com T 393. 5681 F 393. 5685 www.moonye.com blog.naver.com/imoonye

(주)문예출판사 since 1996



“이젠 뮤지컬” 영역 넓히는 연예기획사

대형 연예기획사가 뮤지컬 제작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스타의 연예 활동을 기획, 관리하는 연예기획사가 본격적으로 공연 분야인 뮤지컬 제작에 나서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시장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뮤지컬에 손을 직접 뻗어 제작에 나서는 곳은 대형 연예기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 등이다.

JYJ(김재중, 김준수, 박유천), 배우 최민식, 설경구, 이정재, 이범수, 강혜정, 송지효 등이 소속돼 있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공연 제작 자회사 씨제스컬처를 설립했다. 앞서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뮤지컬계에 티켓파워를 자랑하며 입지를 다진 김준수가 출연한 ‘모차르트’ ‘전국의 눈물’ ‘디셈버’ ‘드라큘라’ 등에 투자하는 등 공연 제작을 한 바 있다.

이처럼 뮤지컬 시장 진입을 도모해 온 가운데, 씨제스컬처는 설립 후 처음으로 뮤지컬 ‘데스노트’(프로듀서 백창주, 연출 쿠리야마 타미야) 제작에 나선다. 오는 6월 성남아트센터 오페라극장에서 막을 올리는 ‘데스노트’는 이에 앞서 4월 도쿄 내셔널극장, 5월 오사카 우메다 예술극장에서 관객과 만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소녀시대, 엑소, 동방신기, 에프엑스, 슈퍼주니어, 샤이니 등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는 14일 홀로그램 뮤지컬 ‘스쿨 오즈(School OZ)’를 개막했다. 최강장민, 키, 루나, 수호, 시우민, 슬기 등 아이돌 스타가 마법의 나라 오즈를 배경으로 각각의 캐릭터로 분해 히트곡과 어우러

씨제스엔터, 공연 전문 ‘...컬처’ 설립
6월 개막 목표로 ‘데스노트’ 첫 제작

SM은 홀로그램 뮤지컬 ‘스쿨 오즈’
다목적문화공간 등 시장 진입 박차

자체 콘텐츠 결합한 수입확장 수단
장르 특성 도외시해 완성도 문제도

져 110분간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는 서울 코엑스 아터움에 뮤지컬, 콘서트 등 공연 목적으로 복합문화공간인 SMTOWN THEATRE를 지어 객석을 270도 둘러싸는 40m 길이의 초대형 파사드, 14대의 고화질 프로젝터로 구현된 14K의 초고화질 영상, 9.1 채널 입체 음향 사운드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통해 관객 만족도를 높일 전망이다. 이처럼 자체적인 극장 설립은 뮤지컬 시장의 적극적인 진입을 위한 포석이다.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SM C&C 역시 본격적인 뮤지컬 제작에 나서 서울 충무아트홀에서 뮤지컬 ‘싱인 더 레인’을 선보인 바 있다.

정강대 뮤지컬스쿨 이유리 교수는 대형 연예기획사가 뮤지컬 제작에 나선 것에 대해 “대형 기획사와 기존 공연 제작사의 제작 동기와 공연의 외양 그리고 관객층이 약간은 차이가 있다. 연예기획사의 경우, 뮤지컬을 사업 확장의 한 수단으로 삼는다. 뮤지컬을 통해 소속 연예인과 음원 등 자체 콘텐츠를 원소스 멀티유즈(OSMU)하면서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또한 아이돌 스타의 활약이 뮤지컬 분야로 이어지는 최근 상황에서 시장 자체가 타깃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교수는 “공연 형태 또한 디지털 등 다른 인접 요소를 결합시키는 쇼 콘셉트가 강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차원이다. 이에 뮤지컬 장르의 다양화, 관객층 확대 면에서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뮤지컬 콘텐츠로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만 기존의 뮤지컬 문법 등 장르의 본질을 도외시한 경우가 늘고 있다. 제작 방식도 다른 기준을 취하다 보니 완성도 면에서 취약한 사례가 드러난다”고 문제점도 적시했다. 이유리 교수는 “연예기획사가 뮤지컬 제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뮤지컬 전문 종사자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서 기본기를 갖춰야 한다. 새로운 장르 실험이나 뮤지컬 영역을 확장하는 건 차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웃들 기자 flowerslee@

드라마 속 직업별 스타일링

종횡무진 취재기자 ‘캐주얼룩’ 시크한 카리스마 검사 ‘슈트룩’

최근 방송가에는 전문직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잇따라 방송되면서 배우들의 패션이 일명 검사룩, 기자룩, 비서룩 등으로 불리며 대중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드라마 속 남녀 주인공을 대상으로 직업별 스타일을 살펴봤다.

◇활동성·보온성을 강조한 기자룩 =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SBS 드라마 ‘피노키오’와 과거 ‘모래시계’를 통해 시청률 50%의 진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송지나 작가 작품인 ‘힐러’의 공통 분모는 기자다. 극중 배우들은 취재 업무 등 외부활동이 잦은 기자 역할을 잘 살려내기 위해 활동성과 보온성을 강조한 캐주얼룩을 줄곧 선보이고 있다. ‘힐러’ 박민영과 ‘피노키오’ 박신혜는 편안한 느낌의 티셔츠나 니트, 특히 활동성 높은 스니커즈로 마무리해 완벽한 기자 패션을 완성했다.



KBS 월화극 ‘힐러’ 박민영.

◇클래식한 분위기의 검사룩 = MBC 월화 드라마 ‘오만과 편견’과 SBS 주말드라마 ‘편지’는 검찰청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주인공들은 다양한 슈트룩을 선보이며 검사 분위기를 더한다. 최근 김아중은 화이트와 블랙 배색의 타이 디테일이 독특한 멋을 전하는 블랙 블라우스와 코트로 눈길을 끌었다. 김아중 스타일링을 맡은 한혜연 패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스커트는 길이감을 길게, 상의는 셔츠보다 풀오버(머리에 서부터 뒤집어써서 입는 형식으로 된 스웨터)와 베스트를 많이 이용했다. 톤 다운된 컬러를 활용해 심플하고 시크하면서 강한 느낌을 연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SBS 월화극 ‘편지’ 김아중.

◇세련미 돋보이는 비서룩 = 시청률 40%를 돌파하며 국민드라마로 거듭난 KBS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비서실장 역할을 맡아 열연 중인 김현주는 깔끔하게 빗어 올린 헤어스타일과 매끄러운 오피스룩을 연출하며 주목받고 있다. 주로 원피스, 블라우스와 스커트를 활용한 투피스에 깔끔하게 떨어지는 재킷으로 세련된 비서룩을 완성한다. 또한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트위드 재킷이나 체크무늬 스커트 등을 활용해 세련되면서도 러블리한 매력을 더한 그만의 색다른 비서룩을 선보이고 있다.



KBS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 김현주.

김민정 기자 mj_kim@

랭킹 엔터테인먼트

영화는 1000만 관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윤제균 감독의 영화 ‘국제시장’이 주간 관객수 193만5695명을 모아 1위를 지켰다. 2위는 아내의 삶인 누명을 쓴 브라더인 밀스(리안 니슨)의 이야기를 다룬 ‘데이킨3’가 주간 관객 66만932명으로 2위 자리를 지켰다. 애니메이션 ‘마다가스카의 펭귄’은 51만1624명을 모아 3위를 차지했다. TV는 KBS 2TV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가 시청률 38.8% (닐슨 코리아 제공, 이하 동일)로 1위를 유지했다. 2위는 시청률 26.4%를 기록한 ‘전설의 마녀’가 올랐다. ‘새 희망 새 출발’ 특집으로 꾸며진 ‘가요무대’는 14.1%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10위에 안착했다. 음악은 샤이니 종현의 솔로곡 ‘데자-부’가 진입 첫 주 6위에 올랐고, 데뷔 13주년을 맞이한 노을은 ‘목소리’로 진입 첫 주 8위를 기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영화	누적관객	개봉일
1	국제시장	193만 5695명	968만 8642명
2	데이킨3	66만 932명	177만 0085명
3	마다가스카의 펭귄	51만 1624명	137만 1416명
4	남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	27만 7149명	464만 4249명
5	기술자들	25만 7097명	250만 6524명
6	언브로큰	20만 2319명	20만 2645명
7	패딩턴	18만 5220명	19만 4900명
8	워킹걸	10만 6062명	10만 8431명
9	호빗: 다섯 군대 전투	9만 5822명	281만 6649명
10	타임 패러독스	5만 9396명	6만 4839명

TV 시청률

순위	프로그램	시청률	방송사
1	가족끼리 왜 이래	38.8	KBS 2TV
2	전설의 마녀	26.4	MBC
3	당신만이 내사랑	25.6	KBS 1TV
4	달콤한 비밀	19.5	KBS 2TV
5	장미빛 연인들	19.2	MBC
6	KBS 9시뉴스	17.5	KBS 1TV
7	해피선데이	16.5	KBS 2TV
8	개그 콘서트	15.4	KBS 2TV
9	정글의 법칙 IN 코스타리카	14.7	SBS
10	가요무대/무한도전	14.1	KBS 1TV/MBC

온라인 음원차트

순위	곡명	아티스트	전주비교
1	위아래	EXID	0
2	LUV	에이핑크	0
3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정승환	0
4	광화문에서	규현	0
5	Problem	Ariana Grande	0
6	데자-부	종현	진입
7	GOOD BOY	GD X TAEYANG	-1
8	목소리	노을	진입
9	Angel	윤미래 with 타이거JK & 비지	-2
10	사뿐사뿐	AOA	-2

Dr. 김시완

Dr. 유상우

의학기자 홍혜길

거침없는 세 남자

닥터들이 만난다

금요일 밤 9시 방송 www.healthmedi.co.kr

HYUNDAI 현대미디어

헬스메디tv

삼DOC

굿DOC



밀폐용기 고유명사 '타파웨어 브랜드' | 21면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주거비 상승 등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조언한다. 대형건설사들은 장기적으로 투자비용을 부담으로 떠안게 되면서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 오랫동안 브랜드 이미지를 가꿔 왔다는 점에서 임대주택에 브랜드를 선택 사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2일 GS건설의 '미사강변센트럴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이 대형 모델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래미안 스테이·자이 스테이, 끌리긴 하는데...

Cover Story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기간 8년의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이 50%로 확대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8년간 100% 감면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났다. 브랜드는 '뉴 스테이(New Stay)'로 정했다.

기업형 임대와 관련한 6개 핵심 규제 중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얹고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대형 건설사들이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처럼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기대감보다는 실용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단기적으로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는 있겠지만 임대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중산층 수요자들에게 어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에서도.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임대시장 공급에 뛰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임대사업 여건이 개선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익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세제 혜택 외에 건설사들이 구입할 토지비용을 얼마큼 할인해 줄 것

정부 법인세 100%감면 등 세제혜택

대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 추진

전·월세난 중산층 주거비 경감 효과

대형 건설사 브랜드가치 하락 우려에

시장 전문가 "실효성 크지 않을 듯"

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건설사들이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브랜드 가치 하락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건설사들이 자사 유명 아파트 브랜드 뒤에 스테이라는 표현을 넣어 '000 스테이'로 기업형 임대주택을 표기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하지만 분양시장에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 우려가 제기되면서 건설사들은 임대주택용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민간 임대주택이 지속적인 공급과 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냐 하는 점이다. 지난 90년대 이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한 선례가 있지만 미분양과 기업손실 등 업계의 요구가 많아 지자 임대기간이 절반도 끝나기 전에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왔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업 임대주택 건설을 꾸준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칙을 고수하고 세제, 금융 등 단순 지원보다 조건부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정책이 국민들의 주거비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새 아파트는 임대료 자체가 높은 편"이라며 "기업이 임차인의 필요에 맞게 중립주거서비스를 제공하면 임차료는 정부가 책정한 시물레이션보다는 높은 가격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커버스토리 18·19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관련 주요 정책 일지

2011. 8. 18
전월세 안정화대책

-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전문임대주택관리회사제도 도입

2013. 4. 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 방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013. 8. 28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방안

- 매입자금 금융지원 신설, 임대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준공공임대주택 신설

2014. 2. 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 매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임대소득세 및 법인세 강화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 2013. 4. 1 이전 취득 주택 등록 허용

2014. 9. 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주거안정 강화방안

- 준공공임대주택 기금 지원 대상 확대 (신규 분양주택 매입시 기금 대출 허용 57가구→107가구)
- 등록조건 완화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가능, 면적제한 폐지)

2015. 1. 13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 기업형 임대와 일반형 임대로 분리 (기업형 임대기간 8년 이상, 종합 주거서비스 제공 / 일반형 단기 4년, 장기 8년 / 준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초기임대료 규제 폐지 /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

5% 임대료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제한8년 '뉴 스테이' 세입자
최소 8년까지 장기임대100% 자기관리형 리츠 임대소득
법인세 8년간 100% 감면1만호 인천·서울 신당동 등
올해 1만호 공급 계획

기업형 임대주택 세제 지원

구분	4년 단기임대(건설/매입)	8년 장기임대(건설/매입)
취득세	60㎡이하 면제	60㎡ 이하 면제, 60~85㎡ 50% 면제
소득·법인세	30% 감면	75% 감면 (기준시가 6억원으로 확대)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	40%(건설임대)	70%(건설임대)

※자기관리형 리츠 임대소득은 법인세 8년간 100%면제

서승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회견실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뉴 스테이' 어떻게 다른가

#경기 군포시에 거주하는 양모(43)씨의 최대 고민은 다가오는 전세계약일이다. 집주인이 1억 8000만원이었던 전세가격을 2000만원이나 올려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하는 양씨 부부는 한달 소득이 450만~500만원 수준으로 적지 않지만 불어나는 전세가격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부친다. 양씨 부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봤지만 지원요건이 까다로운데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여건이 마음에 걸려 선택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산층에 안정적 주거환경

서민 위주 주택대책에서 벗어나

소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 전환

임대사업자에 파격 혜택

각종 세제 감면... 금융지원 강화...

특별법 만들어 건설사 참여 유도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자 민간 분양주택 수준의 8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차원에서 택지, 자금, 세제 등에 대한 지원도 대폭 이뤄진다.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비판론 역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임대주택 대상 범위 중산층까지 확대 =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은 임대주택 정책의 대상 범위를 중산층까지 확대했다는 점이 커다란 특징이다. 이전까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주로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집중돼 왔던 것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최근 치솟는 전세값과 월세화 현상 가속으로 중산층 주거환경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동안 중산층은 제도권의 주거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실제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임대주택 재고는 2006년 49만호에서 2013년 97만호로 98% 증가한 반면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 재고는 같은 기간 84만호에서 64만호로 23.8% 감소했다.

중산층 대상 민간임대주택은 재고 자체도 부족하지만 각종 규제도 품질도 떨어진다. 중산층이 주거 불안을 호소하면서 민간 임대주택 거주를 기피하는 원인이다. 세입자들은 임대료 상승, 잦은 이사, 퇴거요구 등 주거불안을 감수하면서도 사적 민간임대시장에 의존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득분위 5~8분위에 있는 임차가구 가운데 90.3%가 거주하고 있을 정도다.

여기에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임대시장은 빠르게 전세에서 월세 시장으로 재편되는 상황이다. 201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차 가구 가운데 월세 가구 비중은 2012년에 49.9%로 전세(50.1%)보다 낮았지만, 지난해에는 55.0%로 전세(45.0%)를 크게 뛰어넘었다.

이에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면서도 임대료 인상이 안정적인 선에서 관리되는 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

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뉴 스테이(New Stay)'로 이름 붙여진 기업형 임대주택은 최소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임대 기간에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려 받을 수 없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것은 임대료가 주변 일반 아파트 전·월세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란 점이다. 전·월세 등 임대 형태와 임대료는 사업자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단지 내외관은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건설되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월세로 입주할 수 있다.

◇파격적 혜택으로 진입문턱 낮춰 = 정부는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과격적으로 규제를 낮췄다.

8년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60~85㎡의 취득세 감면폭을 25%에서 50%로 확대하고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85㎡ 이하 4년 단기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폭은 20%에서 30%로, 8년 장기임대는 25~50%에서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근 임직원과 전문인력을 두고 직접 관리하는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해주시기로 했으며 양도세의 경우 4년 건설임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30%에서 40%로, 8년 장기는 60%에서 7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 금리 인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금 출자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와 관련한 6개 핵심 규제 중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없애고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민간 임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간 대형 건설사들이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처럼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무려 8억원까지 연 4% 수익률

(세전, 2014.11.17기준, 3개월물, 개인고객)

대신증권 특판 RP

장은 목혀야 제 맛이지만
돈은 굴려야 살 맛 납니다.

당신의 자산,
낮은 수익률에 묵히지 말고, 옮기세요.
대신이니가 크게 드립니다.

조건별 우대수익률 및 한도

구분	자산일고 고객	신규 고객
우대수익률	연 4.0%(세전)	연 3.7%(세전)
개입한도	최대 5억원	최대 5억원
조건	타사 EIS, 연금저축, 펀드, 채권 일고 시	체크카드 발급 및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등록 (1년이상)
비고	자산일고 금액을 합산하여 일고금액 만큼 우대하고 부여 (단, 펀드 단독은 불인정)	당사 신규고객의 계약개설과 우대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중도해지	중도해지시 가입시점의 수시RP 이용 적용	

고객 상담센터 1588 - 4488 *특별판매조건 등 세부사항은 영업점 및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이 손실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RP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P의 만기일 이전 중도환매할 경우 당초 약정수익률보다 낮은 중도해지수익률로 지급됩니다. *RP는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한국금융협회 심사필 제14-07914호(2014.11.20-2015.11.19)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Q&A

전세시장 영향은

시장 숨통... 전셋값 안정화 기여

대기업 특혜 아닌가

별도 요건 없어 중전사에도 기회

최근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고 있다. 임대주택시장의 월세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전세대책과는 관련이 없는 지,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은 없는지, 민간 건설사에 대한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 이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담았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 정책이 자가 유도를 하지 않고, 월세 유도로 전환되는 것인지?

“기업형 임대주택은 자가구매 의사가 없거나 여력이 없는 가구들에게 전세에 갈음하는 새로운 주거유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전세대책은 포기한 것인지?

“전세대책을 포기했다기보다는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기존 전세시장 압력이 줄어들 경우 전셋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들은 분양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할지?

“지난해 신규주택 공급물량은 53만호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는 2013년 대비 20.5% 증가한 수준이다. 신규 공급물량을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해 공급과잉 압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산층이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을지?

“전국 주택 종합의 중위 전셋값(1억3600만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보증부 월세 금액을 고려했을 때, 기업형 임대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 월 임대료 40만원 중반이 될 전망이다. 이는 소득 3~4분위에서 지출하는 주거비 부담과 유사한 수준이어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최초 임대료 규제가 폐지되면 주거비 상승이

우려되는데?

“시장기능에 따라 각 지역과 수요계층에 맞는 적정 임대료 수준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기존처럼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의 품질은 떨어지고 공급 물량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재원을 중산층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서민 주거안정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

“2015년에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1만호 증가한 12만호로 늘리고, 주거급여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기업형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만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본금이나 인력요건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건설사에 특혜를 준다고 보지 않는다. 또 중견 건설업체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을 관리할 경우 기업형 임대사업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공급할 물량(1만호)의 구체적 계획은 있는지?

“인천도시공사 보유 부지에 기금, 도시공사, 대림산업이 공동 출자해 2000호 내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 중구 신당동의 도로교통공단 부지를 활용해 1000호 내외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연내 추가로 LH가 보유한 아파트·연립분양 용지를 매입해 3000호 내외의 물량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별법이 통과돼야 실제로 작동될 것 같은데, 우선 시행될 것이 있는지?

“법 제정을 위한 국회활동을 계획 중이다. 법 제정이 전이라도 기업형 임대리츠 활성화, LH택지 공급조건 완화, 임대주택 보증제도 도입, 주택임대관리시장 성장기반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

박태진 기자 tjipjo@

중산층이라도 월세 60만원은 ‘부담’… 수익성 불투명

“방향은 맞지만” 현실성에 의문

정부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고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민간기업들의 임대주택시장 참여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중산층은 계획대로 주거안정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요자 입장에서 주거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기존 공공기관에서 주로 참여하던 임대사업이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면 업체들에 대한 특허 논란도 불가피할 수 있다. 아울러 택지 공급에서도 민간기업과 정부의 잡음이 생길 수 있다.

공급 늘어도 임대료 높게 책정 땀 수요 미달될 수도

건설사, 초기비용 높고 정부 구체적 수치 없어 신중

기업이 직접 중개업 운영땀 영세사업자 생존권 타격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 ‘글썸’=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키우면서 중산층의 안정적 주거 모델을 만들겠다는 두 가지의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이 목표에는 공급과 수요의 딜레마가 숨겨 있다.

공급량 확대와 수요층의 가격 안정에 대한 동시 만족이 어렵다는 것이다.

권일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자에게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들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가격을 올릴 것이지만 수요층은 해당 물건 구매가 어렵다”면서 “양측 중 한쪽의 피해는 당연하다. 결국, 이 사업의 성패는 양측의 접점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기업형 주택임대물량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업체를 위한 방안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수요자(중산층)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조은상 부동산캐피탈리서치팀장은 “기존 공공임대주택 물량과는 차별화를 둔 설계로 수요층의 만족도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의 주택임대사업 집중 육성과 수요층의 만족도를 높여야 공급과 수요에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거비 부담 vs “영향 미비”=이번 방안은 중산층을 겨냥한 새로운 개념의 주거지 확립이 핵심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초기 임대료 등 가격 면에서 수요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업형 주택임대 물량의 월세는 지방의 경우 40만원대, 수도권과 서울의 경우 60만~80만원대까지로 측정됐다. 특히 수요자들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경우 매월 60만원 이상의 돈이 각 가정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결

국, 비용 부분이 조정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일각에서는 고가의 임대료가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초창기에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틈새시장이기 때문에 관련 물량을 많이 짓지는 못해 임대시장이나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민간기업 특혜?…택지공급·각종 부작용 우려=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대형 건설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박 위원은 “특례라고 할 정도로 과감하게 풀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이견 시각에 따라 다르다. 용적률이나 저렴한 택지, 세제 혜택 등을 감안하면 공공성을 띄워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논란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건 부동산 시장에서 틈새 시장의 틈새 상품이다. 주력 상품이 되기는 힘들다. 때문에 기업 시장의 비중은 적고 수익성도 낮아 민간업체에 대한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대책은 관련 산업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가장 우려되는 게 후방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이다. 중개업 자격이나 이사 같은 법인을 만들어 직접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면 영세사업자가 퇴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립산업 신호탄 쏘지만 대형건설사 ‘열왕실

래’=건설사에 대한 주택임대사업 규제가 완화됐지만 정착 주요 업체들은 망설이고 있는 눈치다. 문제는 사업의 수익성이다. 전문가들이 언급한 만큼 이 분야는 부동산 시장에서 주력시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대립산업이 대형 건설사 중 먼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뛰어들었다. 대립산업은 최근 인천도시공사에 발주한 인천시 도화도시개발구역 내 5, 6-1, 6-2블록 민간 참여 공동주택용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회사 관계자는 “인천 도화동 아파트 사업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진출의 첫 사례”라면서 “이와 관련한 팀도 꾸려졌고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른 대형사들은 관심이 있으나 사업 참여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형업체 관계자는 “주택임대사업에 업계가 포함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사업 관련 할인율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사업 수익성을 따지기 어렵다. 게다가 임대사업 초기 진입장벽이 높아 사업 진출을 망설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임대사업은 토지 매입, 할인 임대, 자금 지원, 세금 등 초기 자금 부담이 생긴다는 뜻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돈 되면 왜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았겠느냐. 이는 사업성에 대해 신뢰를 못 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면서 “이들 건설사는 고급 아파트 브랜드가 있는데 임대주택장에 뛰어들면 아파트 이름에 대한 품격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진 기자 tjippo@



정부가 최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규제를 완화해 건설업체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적극 뛰어들게 한다는 것이 골자. 사진은 서울 우면동 서초보급자리지구 공공임대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Beyond the First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8626(2014.12.30~2015.12.29)

국내최대증권사가 된다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 금융과

투자자들을 위한

새로운 책임이 생겼다는 것

업계를 리드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할

미션이 생겼다는 것



우리투자증권이 NH농협증권과 함께
국내최대증권사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총자산 1위, 자기자본 1위 / 2014년 9월 금융감독 공시기준)

www.nhwm.com

NH투자증권

수요 늘리려면 임대료 상승억제가 관건

“전세서 월세전환 땀 주거비 2배↑ 부담 적은 반전세부터 도입해야”

전월세난을 겪고 있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공개됐다. 하지만 전세수요를 임대수요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임대료의 책정과 추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정부는 최근 전세에 쏠린 중산층 수요를 임대로 돌리고자 민간기업이 공급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뉴스테이 임대주택)’을 제시했다.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 종합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중산층의 주거혁신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전용면적 85㎡ 아파트 중위 전셋값을 기준으로 예상한 임대료는 지방의 경우 평균 보증금 3000만원에 월 30만원이다. 수도권은 보증금 6200만원에 월 62만원이다. 서울은 보증금 1억원에 월 70만원 정도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세수요를 임대수요로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초기 임대료 규제가 폐지된 데다가 지역과 주택 품질에 따라 임대료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임차인의 필요에 맞게 종합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면 임차료는 상향 편중화될 소지가 농후한 데다 새 아파트의 임대료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와 월세의 주거비 차이가 여전히 많이 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

르면 서울 평균 1억6156만원짜리 전셋집의 경우 월 주거비는 43만원이다.

순수 월세로 전환하면 63만7000원 더 증가한 103만7000원으로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로 수요자들은 여전히 전세를 선호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수요를 임대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초기 임대료 상승 억제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은상 부동산캐피탈리서치팀장은 “기업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렸는데 정착 중산층이 비싸다면서 사용을 안 하면 전월세난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기업 특혜로만 남을 수 있다”며 “재정적소에 공급은 물론 임대료 상승 등의 문제가 최소화되게끔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중산층 대부분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주거비가 많이 드는 순수월세로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반전세 형태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 역시 “기업들에 과한 인센티브를 준 만큼 초기에는 보증금 비율을 높이고 월세 비율을 낮춘 반전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자들은 전세가 가장 저렴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진 기자 jungji@

BRIDGESTONE
Your Journey, Our Passion



일본내 판매 1위!
(14년 9월 말 기준)

너만의 레드존을 가져라.
신개념 파워밀링 기술로 똑바로 더 멀리. J715 B3 & B5 탄생.



J715 B3

안정감 있고
파워풀한 고탄도



J715 B5

뛰어난 조작성으로
강한 탄도 실현



Be your Best.

BRIDGESTONE
GOLF



BRIDGESTONE
INVITATIONAL

BRIDGESTONE GOLF
www.bsgolf.co.kr



YouTube

SOKIO 석교상사

서울본사 02-558-2235 부산지사 051-746-5728
주식회사 석교상사는 일본 브리지스톤 스포츠의 한국 공식 파트너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스토리 ㉓ 타파웨어 브랜드

20세기 주방을 바꾼 '밀폐용기 고유명사'



요리도우미 '차퍼 시리즈'

커버에 있는 손잡이를 당기면 3개의 칼날이 15초 동안 288번의 칼질을 하는 효과를 내, 영양소 파괴 없이 건강하게 다양한 식재료를 다져주는 제품이다. 용량에 따라 터보 차퍼(300mL), 스무디 차퍼(730mL), 점보 차퍼(1.2L)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스무디 차퍼와 점보 차퍼는 칼날과 거품기를 교체할 수 있으며, 남은 재료를 따로 옮겨 담을 필요 없이 뚜껑을 닫아 바로 냉장 보관할 수 있다. 또 점보 차퍼는 전용 갈때기도 있어 원하는 소스나 드레싱을 간편하게 첨가해 섞을 수 있다.

환경 친화적 제품 '에코 물통'

1회용 페트병의 사용을 줄이고 지구 사랑을 실천 하자는 타파웨어 브랜드의 '아이 러브 어스(I Love earth)' 캠페인의 대표적 제품이다.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대표적 환경 친화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우수한 밀폐력과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휴대하기 용이하다.

냉동용기 '펭귄 시리즈'

다양한 크기로 구성된 냉동 전용 용기. 강력한 밀폐력으로 외부와의 공기를 완벽히 차단해 내용물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 바닥의 에어홀이 공기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 냉기를 효율적으로 잡아 준다. 유연한 재질로 만들어져 냉동 상태에서 음식물을 꺼내기 쉽다. 또한 다양한 크기 구성으로 층층이 쌓아올려 수납할 수 있어 깔끔한 냉동실 정리에 좋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독창적 세일즈인 '홈파티'의 시초= 타파웨어는 발명가이자 과학자 얼 타파로부터 시작됐다. 1946년 페인트 통 뚜껑의 테두리가 놀랄 만큼 밀봉 효과가 좋다는 것을 발견한 얼 타파는 물과 공기를 효과적으로 차단시키는 완전한 밀폐력을 지닌 '실(Seal)'을 개발해 혁신적 밀폐용기 타파웨어(얼 타파의 'Tupper'와 용기라는 뜻의 'ware'의 합성어)를 시장에 선보였다.

당시는 냉장고가 막 보급되던 시기였으나, 주부들은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스박스나 달걀 보관용 음식물이 빨리 말라 버려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타파웨어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주방용품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러던 중 타파웨어는 마케팅의 귀재 브라우니 와이즈라는 여성에 의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그녀는 미국 중산층 가정 주부들의 오후 커피 타임 또는 사교 파티장을 찾아가 타파웨어 제품의 장점에 대해 먼저 설명한 후 판매했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홈파티의 시초가 됐다.

타파웨어는 홈파티를 통해 타파웨어 제품의 우수성과 활용법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었으며, 제품의 놀라운 성능을 직접 경험해 본 주부들의 입소문을 통해 타파웨어는 음식 보관용기의 대명사가 됐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타파웨어 브랜드의 모든 제품은 홈파티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현재 타파웨어 홈파티는 타

얼 타파, 1946년 밀폐력 강한 '실' 개발... 주방용품 '새 장' 깬 간판... 품질관리·우수한 디자인 100여국 주부들에 사랑 전 세계에서 1.7초마다 열리는 '홈파티'... 독특한 홍보수단 진화한 기술력 바탕 식품·화장품 등으로 사업영역 확대

파웨어 카운셀러가 직접 방문, 제품 설명과 함께 살림 노하우를 전하는 컨설팅 서비스로 진화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1.7초마다 열리고 있다.

◇원로 단계부터 디자인까지= 타파웨어는 단 하나의 제품을 만들더라도 오랜 기간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뛰어난 밀폐력을 가진 제품인지, 시대의 변화에 맞는 진보된 디자인인지, 제품을 통해 여성의 삶이 편리하게 변화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제품 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타파웨어는 원로 개발 단계부터 직접 개입해 미국, 유럽, 일본 및 한국 등 각 국가의 식품위생법에서 모두 안전성을 입증받은 원료만을 사용하며, 전문가들의 간판 품질관리 과정을 거쳐 만들어 진다.

특히, 밀폐용기는 60여년간 축적된 기술의 노하우로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금형을 제작, 식품용기의 필수 요소인 '완벽한 밀폐력'을 구현했다. 이처럼 타파웨어는 차별화된 기술 그리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항상 최고의 제품을 고객에

게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평생 품질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타파웨어가 고객가치를 높인 주요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소비자의 감성을 반영한 디자인이다. 타파웨어는 여성의 생활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은 혁신적 프리미엄 디자인으로, 세계 3대 디자인 상인 '레드 닷 어워드'를 비롯해 '굿 디자인 어워드' 등을 매년 수상하고 있다.

◇주방용품에서 생활용품 브랜드로= 타파웨어 브랜드의 밀폐용기는 웹스터 사전(미국의 대표적 영어사전)에 등재될 정도로 밀폐용기의 고유명사로 불리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 진출해 있다. 이렇듯 밀폐용기로 시작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타파웨어는 다양한 주방용품과 더불어 건강식품, 홈케어 제품, 화장품 등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타파웨어브랜드코리아의 경우 주방용품 라인 타파웨어, 스테인리스 통7종 구조의 조리도구인 레인보우 쿠키 프리미엄(Rainbow

Cooker Premium), 건강기능식품 라인 네이처케어(NaturCare), 그리고 쾌적한 조리 환경을 만들어 주는 원적외선 쿡판,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한 물을 직수로 가정에서 마실 수 있는 나노네이처 정수기 등 국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제품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어린이와 여성을 생각하다= 타파웨어는 사회생활 경험이 없거나 경력이 단절돼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여성을 위해 체계적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타파웨어 브랜드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홈파티 및 팀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운영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업무 교육, 리더십 세미나, 국내외 페스티벌 행사 등의 문화생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타파웨어는 여성의 자신감을 응원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 권장하는 '여성의 자신감 캠페인(Chain of Confidence)'을 글로벌 미션으로 지정하고 이 같은 활동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다.

펀드를 통해 개발도상국 여성과 어린이의 교육 및 생활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파웨어 어린이재단을 통해 타파웨어 브랜드 직원들은 멕시코·필리핀 등 세계 각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재단인 로그로소재단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은 재정 지원, 봉사활동과 멘토링, 아동도서 기증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선재 기자 L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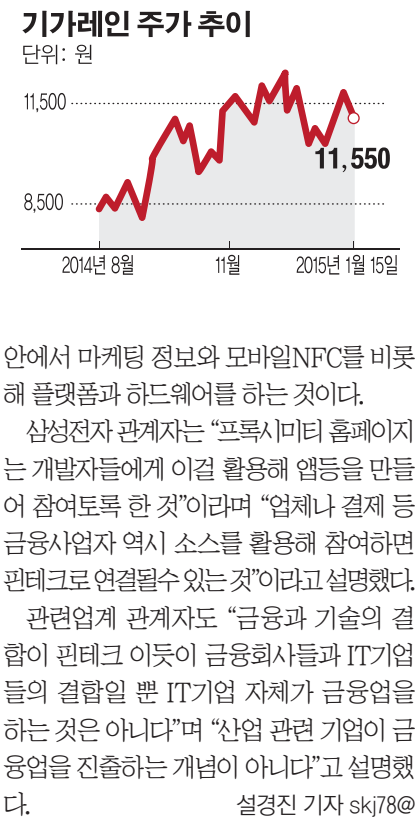


‘삼성 프록시미티’ 핀테크 추가?

〈블루투스 이용 위치기반 커머스〉

삼성전자가 기가레인 등과 협력해 출시한 ‘삼성 프록시미티’에 결제 기능이 결합되면 ‘핀테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프록시미티”는 근거리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한 위치기반 커머스 서비스”라며 “여기에 결제 기능을 추가하면 핀테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핀테크란 모바일커머스 범주에 포함된다”며 “현재 확대를 하고 있고 만일 매장과 제휴한다면 결제까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 아이비콘과의 정면 승부를 위해 위치 기반 사물인터넷(IoT) 솔루션 ‘삼성 프록시미티(Samsung Proximity)’를 출시했다. 기가레인에서 단말기등을 공급하고 래디우스네트웍스, 록시미티, 스웰 등 비온제조사와도 협력하고 있다. 프록시미티는 전용 단말기를 통해 매장 방문객 등 사용자의 위치에 맞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명품 매장 앞에

가면 새로 도착한 상품을 제공하고, 아울렛 매장 앞에 가면 추가 할인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애플이 출시한 아이비콘 서비스와 비슷한 개념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핀테크 사업이 국내에서 활성화 되려면 금산분리가 우선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핀테크를 빌미로 금융업에 뛰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은행과 핀테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이며 핀테크를 한다고해서 금융업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애플이나 구글 등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 IT기업들 역시 금융업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제공하고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역시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다고 해도 결제 기능 등 금융 부분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모바일커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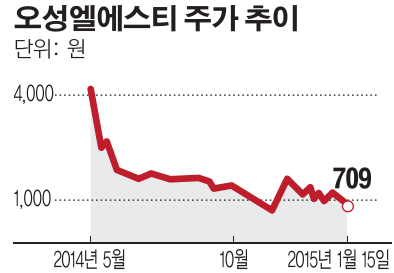
안에서 마케팅 정보와 모바일NFC를 비롯해 플랫폼과 하드웨어를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프록시미티 홈페이지는 개발자들에게 이걸 활용해 앱을 만들어 참여토록 한 것”이라며 “업체나 결제 등 금융사업자 역시 소스를 활용해 참여하면 핀테크로 연결될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도 “금융과 기술의 결합이 핀테크 이듯이 금융회사들과 IT기업들의 결합일 뿐 IT기업 자체가 금융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산업 관련 기업이 금융업을 진출하는 개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공시 돋보기

사흘째 하한가 기록한 오성엘에스티

이틀만에 총 5400만주 발행
해외 채권자 2200만주 출회

오성엘에스티가 사흘째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전환사채(CB)의 전환권 행사로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며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오성엘에스티는 지난달 30일 CB 전환청구권 행사로 4290만6532주를 발행했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61.4%에 해당한다. 하루 뒤인 31일에도 전환청구권 행사로 전체 발행주식의 9.9%에 해당하는 1121만 1999주가 발행됐다. 오성엘에스티는 단 이틀 만에 5411만 8531주가 발행되며 전체 주식의 48%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당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팽배해지며 지난 7일부터 오성엘에스티 주식은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12일부터는 가격제한폭까지 폭락하며 매 거래일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전환청구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이 상장한 1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당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나오며 ‘공급-수요의 원칙’에 따라 가치와 가격이 추락한 것이다. 이 같이 대규모로 전환청구권을 행사한 주체는 국내의 채권자다. 특히 해외 채권자들이 청구한 주식을 매도에 나서고 있는 점이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스위스의 자브레 캐피탈 파트너스와 크레디트스위스그룹 AG, 아일랜드의 서스키하나 아일랜드 리미티드, 홍콩의 오씨 파아시아 리미티드 등의 해외 채권자는 약 2200만주의 주식을 전환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인테그레이티드에너지 미국 DE 전기차 공개

스포츠카 ‘SP:01’ 국내 독점 공급

인테그레이티드에너지는 국내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미국 전기자동차 전문기업인 디트로이트 일렉트릭(Detroit Electric Holdings Limited)의 전기 스포츠카 ‘SP:01’의 최종 인테리어와 외관 디자인을 14일 공개했다. SP:01은 210kW 전기 모터와 285마력의 모델로 카본-파이버 바디패널과 표준 수동 변속장치를 갖추고 있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속도를 내는 제로백이 단 3.7초에 불과하고 한 번 충전으로 약 288km를 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고 속력은 약 250km/h까지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순수 전기 스포츠카다. SP:01의 디자인은 2013년 상하이 모터쇼에서 공개되었던 프로토타입 모델에서 공기 역학적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뒷유리 부분을 지붕에서 뒤끝까지 유선형으로 된 새로운 패스트백(fastback)으로 변경했다. 실내에는 센터 콘솔(center console)에 모든 아날로그 다이얼과 컨트롤 패널부분을 8.4인치 터치스크린 태블릿으로 대체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드론에 관심보인 이재용... 퍼스텍, 일단 미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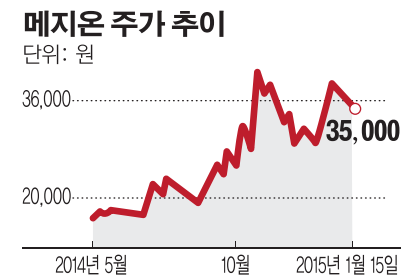
〈삼성전자 부회장〉

무인기 제조사 상한가... 대부분 군사용 상업화는 시기상조

최근 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드론, 3D프린터, 스마트카 등 CES 현장 트렌드를 담은 영상을 지켜봤고, 특히 드론에 관심을 가졌다는 보도에 퍼스텍 주가는 전날 상한가로 치솟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드론 관련주로 퍼스텍,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 등이 주목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모두 무인항공기를 제조한다.

특히 퍼스텍 자회사 유콘시스템은 무인기 ‘디모아이’를 개발했으며,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틸트로터 형식의 ‘티로터(T-rotor)’라는 신개념 무인기를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및 중동에 수출을 하기 위한 데모 시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드론이 대부분 군사용이라는 데 있다. 상업화 드론을 통해 수익을 얻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유콘시스템 관계자는 “아마존에서 드론

으로 택배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선도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가장 좋은 배터리를 써도 한번 충전에 20여분 밖에 날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는 허황된 얘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콘시스템은 민수용으로 농약 살포 등의 기능을 갖춘 무인헬기도 개발, 농협에 공급한 적도 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유콘시스템 관계자는 “당시 농민들이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게 실패 원인”이라며 “아직 민수용은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시장”이라고 털어놨다.
송영록 기자 syr@



자의 비아그라, 릴리의 씨알리스가 양강 구도를 구축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메지온, 발기부전치료제 美 FDA 허가 신청

메지온은 미국 식품의약청(FDA)에 발기부전치료제 ‘유데나필’에 대한 신약 허가신청(NDA)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데나필은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 자이데나(제품명)로 출시됐으며 연내 미국 식품의약청(FDA) 최종 허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FDA는 신약허가 신청서를 제

출하면 약 10개월간 해당 신약의 안전성과 효능성에 대한 검토과정 및 내부 전문위원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를 통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메지온은 유데나필의 신약 허가 시 북미 시장 진출에 집중, 1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북미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은 연간 약 25억 달러 규모로 화이



HERNO

이탈리아 프리미엄 패딩, 에르노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무역센터점 / 02 3449 5965 · 02 3467 8377

1973

2015

43년간의 다짐

1973년 퀴즈가 낫설던 시절,
 “열 사람 중 한 사람만 보아도
 청소년에게 유익하다면 조건없이 후원하겠다”는
 다짐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3년이 흘렀습니다
 한 명이라도
 지혜를 겨루려는 청춘들이 있고
 그들에게 응원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한
 장학퀴즈는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한 자원이라는 믿음,
 변치 않고 지켜갈 SK의 믿음입니다

행복을 나눕니다 **OK! SK**

2,000여회 이상 방송, 출연 인원 16,000여명. 하지만 장학퀴즈의 가치는 오랜 역사로만 설명 되지 않습니다. 공부방 자원봉사 등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출연자 모임 '수람', '인재양성의 성심(誠心)'으로 중국인을 감동시킨 중국 장학퀴즈 'SK 장원방'을 통한 양국 학생들의 교류에 이르기까지 장학퀴즈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시대의 문화코드입니다